

都給組織의 實態와 對策

— 機械工業을 中心으로 —

金 裁 元
趙 振 衡

▷ 目 次 ◁

- I. 都給의 意味
- II. 都給去來의 經濟的 意義
- III. 都給組織의 實態
- IV. 要約 및 政策提案

I. 都給의 意味

1. 都給의 定義

都給組織이란 우리나라의 系列化¹⁾促進法(2

筆者: 金裁元—韓國開發研究院 副研究委員, 趙振衡—韓國開發研究院 研究員

- 1) 우리나라에서는 都給組織의 增進을 ‘系列化’의 增進(또는 促進)으로 부르고 있다. 이는 日本의 都給組織形態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음에 다시 언급하게 되겠지만 日本의 制度가 우리나라에서도 理想的 模型이라고는 할 수 없다. 특히 ‘系列化’의 의미가 中小企業育成策에서는 都給組織의 增進이지만 企業의 財務構造改善을 위한 9·27措置에서는 系列企業의 整理를 促求하고 있어 우리에게 混亂을 가져다 주고 있다. 여기서는 系列化 促進法과 같이 法體系를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系列化’라는 用語 대신 ‘都給組織’이라는 用語를 使用하기로 한다.
- 2) 都給組織의 種類와 形態에 관하여서는 다음 節에서 자세하게 說明하겠음.

條 1項)에서도 定義되어 있는 바와 같이 母企業(primary company, contractor)과 受給企業(secondary company, subcontractor)간의 契約에 의한 生産分業體系를 의미한다.

受給企業은 母企業의 注文에 따라

① 部品(parts) 또는 그 附屬品(components)을 生産·供給하거나

② 母企業에 의해서 販賣될 製品을 組立 또는 生産하거나

③ 原資材(素材)를 加工(原資材를 母企業이 提供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하게 된다.

이와 같이 母企業과 受給企業間的 雙方去來를 都給去來라고 부르고 있다.

都給組織은 基本的으로 專門生産業者들이 受給企業(specialized subcontractors)들에 의한 生産分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²⁾ 많은 專門受給企業의 育成은 곧 “都給組織의 擴大”(expansion of subcontracting arrangement)를 뜻하는 것이고 都給組織의 量的 膨脹을 의

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技術水準이 일층 높아지고 生産의 迂廻範圍(roundabout production)가 더욱 넓어지게 되면 生産의 分業體系는 더 한층 細分되어 母企業으로부터 生産을 委託받은 受給企業(1次下都給)은 特定部分에 대하여 또다시 專門生産業者에게 生産을 의뢰(2次下都給)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生産의 專門性이 더욱 細分되기 때문이며 이와 같이 都給組織이 重層的 構造(multiple subcontracting)를 갖게 되는 것을 ‘都給組織의 深化’(deepening of subcontracting arrangement)라고 한다.

그러므로 都給組織의 增進이란 都給組織의 擴大와 深化를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2. 研究의 目的 및 範圍

1970年代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장래에 있어서의 比較優位가 重化學工業에 있을 것이라는 豫見下에 産業政策이 機械工業을 中心으로 한 重化學工業의 育成으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部門은 특히 構造의 高度化를 토대로 하여 發展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는 곧 都給組織의 增進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重化學工業에 있어서 都給組織의 增進은 專門의인 生産技術을 가진 中小企業의 育成을 통해서만 可能하게 된다. 이는 重化學工業의 特性이 資本集約的이고 技術集約的이기 때문이며 또 巨視的으로 볼 때는 資源의 効率的 配分을 통해 經濟全體의 効率性을 提高시키는 이른바 産業構造高度化로의 이행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研究은 重化學工業中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機械工業(KSIC 38-業種)을 中心으로 이루어졌다. 우리의 關心은 첫째 直接的인 專門受給企業의 育成方案과 둘째 都給組織의 增進過程에서 發生하기 쉬운 母企業과 受給企業間의 不均衡의 地位를 시정하고 跛行的 發展을 막기 위한 政策的 支援方案에 관한 研究에 焦點이 주어졌다.

3. 都給組織의 種類 및 形態

都給組織의 形態로는 母企業과 受給企業間의 關係에 따라 다음과 같이 區分된다.

가. 母企業의 機能에 의한 區分

이것은 母企業이 最終生産物의 製造와 販賣를 모두 擔當하느냐 아니면 販賣만은 擔當하느냐에 따라서 區分하는 것으로 이는 주로 受給企業이 生産하는 財貨의 形態에 의해서 區別되는 것이 보통이다.

1) 商業的 都給(commercial subcontracting)

이 경우에 있어서 母企業은 生産施設을 갖추지 않고 오직 製品의 販賣網만을 가지고 있으며 受給企業들은 母企業의 商標로 販賣될 完製品을 生産하여 母企業에 納品하게 된다(母企業이 受給企業에 대해 原資材를 供給할 수도 있음). 이와 같은 商業的 都給去來는 商業資本이 産業資本化한다는데 큰 經濟的 意義를 가지고 있다.

2) 企業分業的 都給(industrial subcontracting)

母企業은 完製品의 製造 또는 部品の 最終

完成을 擔當하고 受給企業들은 이를 위한 部品 또는 附屬品の 製造를 擔當하는 企業分業的 都給形態로서 우리가 一般的으로 말하는 都給去來關係를 말한다.

나. 財貨의 흐름에 의한 區分

1) 國內企業間 都給

위에서 설명한 都給去來가 國內企業間에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2) 國際企業間 都給(international subcontracting)

都給去來가 國籍을 달리하는 企業間에 이루어지거나, 國籍은 같더라도 서로 다른 國家의 領土內에서 活動하는 企業間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國際企業間 都給은 直接的인 都給(direct subcontracting)과 間接的인 都給(indirect subcontracting)으로 나눌 수 있는데, 直接的인 都給은 受給企業에 의하여 生産된 財貨가 他國 所在의 母企業으로 納品되는 경우이고 間接的 國際都給은 外國의 多國籍企業이 受給企業이 存在하는 國家(host country)에 子會社를 設立하여 이것이 母企業의 役割을 하는 것으로 같은 國家內에 位置하기는 하나 國籍을 달리하는 母企業에 納品하는 경우이다. 이밖에도 多國籍企業의 子會社間에 都給去來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Michalet의 分類에 의한 Type A, Type B, Type C, Type D 形態의 都給關係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直接的 國際都給

i) 獨立的 企業間(Type A)

ii) 子會社間(Type D)

② 間接的 國際都給

i) 子會社와 現地受給企業間(Type B)

ii) 現地の 子會社間(Type C)

다. 都給動機에 의한 區分

1) 生産能力都給去來(full-capacity subcontracting)

일시적인 需要增加(好況)에 의해 生産의 增加가 필요할 때 時間外 勤務나 施設擴張보다는 都給을 주는 것이 有利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都給去來形態로 短期間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2) 費用節減都給去來(economic subcontracting)

費用節減은 모든 母企業이 都給을 주는 基本的 動機라고도 볼 수 있는데 都給去來를 통해 費用을 節減할 수 있는 이유는 中小規模의 受給企業들이 대개의 경우

① 利潤率을 낮게 잡고(low profit margin) 있으며,

② 勞働者들에 대한 附加給與(fringe benefit)가 낮고,

③ 管理費用과 間接費用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3) 限界都給去來(marginal subcontracting)

小量의 不規則的 注文을 小規模受給企業에 넘겨 주는 경우의 都給去來를 의미한다.

4) 專門生産都給去來(specialized subcontracting)

受給企業이 特定の 專門의 生産施設이나 生産技術(特許權, know-how 등)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 企業에 대하여 母企業이 特定部品의 生産을 委託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都給去來이다.

II. 都給去來의 經濟的 意義

1. 都給去來의 特徵

受給企業이 母企業으로부터의 注文에 의하여 財貨를 製造·加工함에 있어서 一般的인 經濟活動과 區別되는 것은(企業分業的 都給去來의 경우), 첫째 需要者(母企業)가 극소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供給者는 需要者의 독특한 기호를 충족시켜야 하는, 즉 製品의 디자인이 母企業에 의하여 미리 정해져 있다는 점(pre-established specification)이고, 둘째 受給企業이 獨自的으로 市場開拓(marketing)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特徵은 母企業과 受給企業間에 긴밀한 協力關係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受給企業이 母企業과의 去來關係에서 불리한 地位를 갖게 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受給企業은 市場開拓의 努力이 불필요하기 때문에³⁾ 財貨의 生産에만 專念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어느 特定의 部品生産에 專念할 경우 專門化가 쉽게 이루어져서 母企業과의 去來關係에서 有利한 地位를 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2. 都給去來의 經濟的 利益

企業間的 垂直的 및 水平的 結合(vertical

and horizontal integration)은 規模의 經濟效果를 얻을 수 있고, 近代의 生産設備를 갖추는 데 容易하며, 大量의 原料購入으로 費用節減의 利를 볼 수 있고, 專門의 經營技法을 쉽게 導入할 수 있는 등의 有利한 점이 있다. 그러나 企業規模가 일정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規模의 非經濟에 직면하게 된다. 그 主要理由로서는 特定生産工程에서 過剩施設을 초래하게 되고, 經營上의 非經濟(mismanagement)가 따르게 되며, 獨占에 대한 社會·經濟的 壓力 등이 불필요한 經費支出을 要求하게 되기 때문이다. 受給企業(주로 中小企業)들은 母企業에 비해 賃金率이 낮고, 勞動集約的인 生産體制를 가지고 있으므로 大企業이 都給去來를 하게 되면, 첫째 勞動費用이 저렴하게 되고, 둘째 資本減價費用이 저렴하게 되며 셋째, 技術蓄積의 費用이 저렴하게 되고, 넷째 經營費用節減의 效果를 보게 되며, 다섯째 效率的인 生産을 통한 生産費의 節減(專門生産都給의 경우)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都給을 받는 受給企業은 販路가 安定되고, 專門化가 容易하게 되며 母企業으로부터 技術·經營指導 및 原資材의 支援뿐 아니라 金融支援(先受金 등)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상의 微視的 分析和 함께 都給增進이 經濟全般에 가져다 주는 利益으로는 資源의 效率的 利用 및 健全한 下部構造의 形成이 可能해지고 輸入代替가 容易해져서 對外競爭力이 強化될 수 있으며, 産業의 地域的 分散이 가능하게 되어 賦存資源의 效率的 利用을 기대할 수 있고, 近代의 企業經營技法의 開發 및 普及이 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3) 受給企業에서 市場開拓의 需要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일반적으로 市場開拓의 努力이 얼마만큼 필요하냐에 따라서 日本制度와 歐美의 制度가 구별된다.

3. 都給去來의 增進과 經濟政策

都給去來도 一般經濟去來에서와 마찬가지로 需要⁴⁾와 供給에 의해서 均衡去來量과 均衡價格이 決定되는 것이므로 去來의 成立이 철저히 經濟의 原理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去來의 成立이 利潤動機에 근거한 需要와 供給의 原則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企業間的 競爭이 保障되는 企業環境의 造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다시 말해 都給去來도 市場機能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一般 消費市場에서 消費者들로 하여금 物件을 강제로 사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都給去來에서도 母企業으로 하여금 母企業 自身の 利益과는 관계없이 特定部品の 生産을 受給企業에 강제로 委託하도록 하는 것은 經濟原理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또한 効果도 없다. 따라서 都給去來의 增進을 위해서 政府가 직접적으로 간여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 다만 專門受給企業을 支援育成하여 母企業으로 하여금 都給組織의 活用이 利潤增大를 위해 유리하도록 해주는 方法밖에 없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특히 巨視的 觀點에서 볼 때) 都給組織의 活用(都給去來)이 長期에 있어 有利함에도 이를 活用하지 않는 경

우가 發生하게 된다. 이는 市場이 그 機能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와 短期에 있어 非經濟的이라는 理由로 都給去來를 기피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狀況에는 長期의인 眼目에서 政府의 直接的인 干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系列化促進法⁵⁾에는 商工部長官이 指定系列化品目の 範圍를 商工部令으로 告示할 수 있으며 指定系列化品目を 製造하고 있는 母企業에 대하여는 그 製造를 受給企業에 委託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政府의 直接的인 干與가 필요할 때 한해서만 最小限의 範圍에서 行使되어야 할 것이다⁶⁾.

오늘날의 都給組織에서는 一般的으로 巨大한 資本을 必要로 하는 組立企業으로서의 母企業과 比較的 單純勞動集約的인 受給企業 그리고 尖端技術을 가지고 있는 專門受給企業의 세 그룹으로 構成되어 있다. 따라서 都給組織의 增進을 위해서 政策的으로 支援할 수 있는 範圍란

첫째, 급속히 改善·開發되고 있는 生産技術을 傳統的인 中小企業에 전달하기 위해 技術指導와 더불어 새로운 生産技術에 대한 情報를 提供하는 일이고,

둘째, 새로운 生産設備를 갖출 수 있도록 傳統的인 租稅·金融手段을 動員하여 支援하는 일이고,

셋째, 危險負擔이 높은 尖端技術의 開發이나 새로운 開發된 技術의 企業化(commercialization)를 支援하는 것 등이다.

여기에 첨가하여 都給去來過程에서 發生하기 쉬운 母企業과 受給企業間에 不均衡的인 經濟的 地位를 矯正할 수 있도록 諸制度를 改善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指摘한 바와

4) 母企業이 最終生産物을 生産하는 경우에는 母企業으로부터의 需要는 最終生産物의 消費市場으로부터 유도된 需要(derived demand)임.

5) 系列化促進法 第5條.

6) 그러나 系列化促進法 第5條 第2項은 '指定系列化業種에 속하는 母企業體는 指定系列化品目の 製造를 受給企業體에 委託하여야 한다'고 規定되어 있고, 指定系列化品目の 數는 1983年 上半期까지 1,300個品目(1982年 1,038個)에 이르도록 計劃되어 있다.

같이 都給去來의 特性으로부터 연유하는 母企業과 受給企業間의 摩擦을 最小化하자는데 그 根本目的을 두고 있는 것이다.

4. 都給組織增進의 前提條件

都給組織의 增進을 위하여서는 市場條件과 技術條件이 充足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들 두 前提條件들은 相互依存의이고 同時의이다. 즉 充分한 市場이 確保되어야 生産分業의 利益을 最大로 살릴 수 있고 또 生産의 專門度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生産의 分業이 이룩되어야 生産의 專門性도 쉽게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發展의 初期段階에서는 이 두 가지 前提條件의 同時充足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中小受給企業들이 短期的으로 볼 때는, 蓄積된 生産技術이 不充分하고 專門化가 未盡하며 협소한 國內市場과 國內生産費用의 相對的 高率 때문에 이런 것들이 開發途上國에서의 都給組織增進에 隘路要因이 되고 있다. 또 長期的으로 볼 때는 都給去來를 통해 專門生産企業을 育成하고 이를 위해 幼稚産業의 保護가 필요하게 되지만 이는 長期에 있어서 오히려 國際競爭力을 弱化시키는 結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 政府의 지나친 保護는 企業家精神의 培養(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에 否定的 效果를 초래할 염려마저 있으므로 受給中小企業에 대한 政策的 支援은 企業活動의 活性化를 위한 動機賦與와 機會의 不平等要因을 제거해주는 範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技術의 蓄積과

開發을 위하여서도 이것이 利潤의 動機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誘導해야 하며 이를 위한 基本條件은 말할 것도 없이 經濟의 安定⁷⁾임은 뒤에서도 指摘하였다.

끝으로 都給組織의 成功的 增進을 위해서는 各種部品을 分業生産하는 受給企業間의 共同連帶意識과 相互理解의 高취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하나의 完成製品이 갖는 信賴度가 각 部品들의 信賴度の 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느 한 部品에서의 品質上의 失敗는 해당 完成製品의 信賴性을 실추하게 되고 이는 곧 關聯部品生産企業 全體에 影響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 都給去來의 一般的 問題點

가. 母企業이 當면하는 問題點

受給企業들의 專門性 결여, 原材料不良 등으로 인하여 미리 處方된 設計(pre-established specification)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와 受給企業들의 經營未熟, 生産計劃上的 蹉跌 등으로 인해 納期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등의 問題點들이 있다.

나. 受給企業들이 當면하는 問題點

受給企業들이 當면하는 問題點은 대개의 경우 母企業과의 去來關係에서 發生하는 不均等한 經濟的 地位로부터 연유하는 것으로서 母企業으로부터의 不當한 製品單價引下要求, 代金決済의 遲延, 까다로운 品質檢査 및 規格의 잦은 變更, 또 不規則的 注文으로 인해 一定水準의 原資材의 在庫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 등이다.

7) 인플레이가 高率로 지속되면 固定資産에 대한 投資가 높은 資本的 利潤(capital gain)을 초래하게 되므로 長期에 걸쳐 비로소 效果를 얻을 수 있는 技術의 蓄積이나 開發에 대해서는 投資意慾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 國際都給에 있어서의 問題點

國際都給去來의 動機로서 母企業側은 값싼 勞動力의 利用, 開發途上國에서의 都給去來誘致政策 때문에 입는 利益 등이 있고, 受給企業側은 雇傭의 增大, 技術移轉, 國際收支의 改善 등이 있다.

이러한 動機들에 의해 國際都給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需要者로서의 母企業(先進工業國)이 겪는 隘路事項은 受給企業側의 낮은 生産技術水準과 企業經營未熟에서 오는 納期の 不確實性, 開發途上國에서의 不必要한 政府管理體制의 複雜性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國際都給增進을 위하여서는 높은 水準의 生産技術을 가진 專門受給企業의 育成이 우선 重要하며, 企業規模가 작고 經濟力이 微弱하여 海外市場開拓(國際都給去來)의 餘力이 없는 이들 中小受給企業들을 위해 情報提供 등의 支援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6. 都給組織運營의 國際比較

都給組織의 運營이 그 나라의 經濟發展過程과 發展의 程度에 따라 그 樣相을 달리하기 때문에 都給組織의 基本原理는 동일하면서도 그 運營形態는 나라마다 큰 差異를 보이고 있다. 이런 觀點에서 볼 때 都給組織을 유럽式制度和 日本式制度로 區分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徒弟制度

가 發達되어 技術人力의 再生産과 傳授가 企業自體的으로 잘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그 때문에 小規模 專門企業이 自生的으로 育成되어 왔다. 따라서 都給去來도 受給企業間的 철저한 競爭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政府나 公共團體의 直接的 干與는 극히 제한된 範圍內에서 즉 中小受給企業에 대한 技術指導, 情報提供⁸⁾, 危險負擔이 높은 新技術開發投資나 新技術의 企業化 등에 한해서 支援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通念의 積極적인 支援政策은 별로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提起되고 있는 母企業과 受給企業間的 마찰문제는 그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다⁹⁾. 그러나 都給組織의 特性에서 오는 母企業과 受給企業間的 協力體制에 있어서는 虛弱點을 내포하고 있어 對外競爭의 次元에서는 다소 不利한 運營方式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日本의 경우는 歐美工業國에 비해 뒤늦게 經濟發展을 推進하면서 歐美의 先進國으로부터 經濟의 運營方法을 배워 왔으며 그 推進過程에서 政府의 政策的인 배려가 크게 작용하여 왔다. 특히 都給組織의 擴大에 있어서는(특히 自動車를 비롯한 機械工業에 있어서) 企業別 所要資本에 비해 蓄積된 資本이 부족하여 企業間 協同이 要請되었으며 이것이 都給組織의 擴大로 連結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日本制度의 特徵은 母企業單位別로 受給企業群이 形成되어 있으며 母企業과 受給企業間에는 人的 및 資本的 系列關係로 강력하게 맺어져 있다. 그러므로 母企業과 受給企業間的 協力面에서는 매우 有利한 組織形態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系列關係에서 誘發되기 쉬운 母企業과 受給企業間的 摩擦, 競爭原理의 破壞 등은 日本 特有的인 社

8) 中小專門生産企業이 地域特性에 따라 全國에 自生的으로 設立되어 散在하여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情報의 提供은 都給組織增進에 매우 重要的 要素가 되고 있다.

9)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都給去來에서 發生하기 쉬운 一般的인 問題는 물론 있음.

會의 傳統으로 絶妙하게 극복하고 있다¹⁰⁾.

이런 觀點에서 볼 때 日本의 制度가 우리에게 有利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나 實際運營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日本과는 다른 社會的 意識構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日本에서와 같은 效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社會 및 企業環境에 맞고 또 유럽 및 日本制度들이 갖는 長點을 최대한으로 살린 새로운 制度의 開發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¹¹⁾.

Ⅲ. 都給組織의 實態

1. 標本調査 結果의 分析

우리는 우리나라 機械工業에서의 都給構造의 實態를 좀 더 正確하게 把握하기 위하여 標本調査를 實施하였다¹²⁾. 이 調査의 주된 目的은

첫째, 都給構造의 範圍 즉 都給去來가 얼마나 活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

둘째, 都給構造의 內容 즉 受給企業이 얼마나 專門化되어 있는가를 알아 보려는 것이었다.

특히 우리는 受給企業 育成의 問題들로서 市場確保, 技術水準, 情報體制, 金融構造, 原料確保, 母企業과 受給企業間의 代金決済, 國際下請에 關聯된 問題點들을 把握하고자 하는데 重點을 두었다. 調査範圍는 韓國標準產業分類(KSIC) 38에 해당하는 機械工業에 限定하였으며 蒐集된 資料中 活用可能한 標本企業數와 標本品目數는 각각 505個 企業과 532個 品目이었다. 調査結果 抽出된 都給組織의 實態와 對策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가. 企業의 背景

〈表 1〉 企業의 背景

	標本의 크기	해당企業數	比重 (%)
1960年度 以後에 創業한 企業數	505	421	83.4
現經營人이 創業者인 경우	505	356	70.5
現經營人의 教育程度가			
(i) 高卒 以上인 경우	441	423	95.9
(ii) 大卒 以上인 경우	441	295	66.9
現經營人의 專攻分野가			
(i) 工學인 경우	406	145	35.7
(ii) 商經 및 法學인 경우	406	170	41.9
(iii) 其他	406	91	22.4
(非工學 分野)		(261)	(64.3)

우리는 첫째 우리나라 中小企業의 創業歷史가 짧고 또 現經營人의 대부분이 創業者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事實은

① 企業經營의 經驗이 日淺하다는 點과

② 技術의 蓄積程度가 貧弱하다는 點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經營人의 教育水準은 비교적 높은데 반해 經營人의 教育背景이 대부분(64.3%) 非工學系統임을 알 수 있다.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經營人이 技術問題를 包含한 企業全般의 經營責任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經

10) Hoselitz教授에 의하면 日本의 都給去來에서는 아직도 日本 特有의 '親分關係'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Economic Policy for Development, Penguin Book, 1971). 따라서 母企業은 系列企業들의 生死를 保障해 주는 대신 受給企業들은 母企業을 위해 最善의 努力을 경주하게 된다.

11) 그 具體的 方案에 관하여서는 Ⅲ章에서 說明하였음.

12) 標本調査의 結果(빈도수)는 金栽元, 『機械工業에서의 都給去來增進方案에 관한 研究』, KDI, 1983.2. 附表에 要約되어 있음. 따라서 標本의 크기, 地域別分布 등은 報告書의 附表를 參照하기 바람.

營人と技術人が分離되는 경우에는企業經營の費用에도問題가 되지만 技術開發의積極性에도問題가 된다. 技術人が創業을 하여直接經營을擔當하는 경우는小規模專門生産企業에서 특히 중요한觀點이 되고 있는데 이는專門技術人에 의한創業은 技術開發을側面支援하는結果를 가져오게도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企業의 活動領域

標本企業들의 企業活動 領域을 볼 것 같으면 첫째, 輸出에 參與하는 企業(國際下請包含)이 42.4%에 이르러 비교적 높은 水準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둘째, 60%以上の 市場占有率을 가진 企業이 26.4%나 되어, 中小企業이라 할지라도 專門生産性을 保有하여 獨寡占의 地位를 누리는 企業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¹³⁾. 從業員規模 9人以下의 小規模企業에서도 60%의 市場占有率을 가진 企業이 9.5%나 되어 外國에

비해 상당히 높은 比重을 보여 주고 있다¹⁴⁾.

세째, 原料는 一般的으로 國產原料를 使用하나 國產原料는 ①높은 價格과 ②낮은 品質이 문제이고 輸入原料는 ①높은 在庫維持費와 ②輸入에 따르는 높은 附帶費用이 문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都給去來의 形態

우리의 標本中 69.3%가 여러가지 形態의 注文生産에 응하고 있으므로 機械工業에서의 都給去來는 비교적 廣範하게 利用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都給이 1次都給에 그치고 있어(受給企業中 7.2%만이 2次以上の 都給에 依存) 都給의 深度는 微弱한 形편이라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2次以上の 都給이 發達하지 못하는 理由는 母企業과 受給企業 모두가 이를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母企業에서는 完成部品の 組立(sub-assembly)을 外部의 受給企業에 依存하는 것을 꺼

〈表 2〉 企業의 活動領域

	標本の 크기	해당企業數	比重(%)
輸出參與 企業數	504	214	42.4
60%以上の 市場占有率을 가진 企業數	488	129	26.4
原料의 50%以上을 輸入에 의존하는 企業數	501	64	12.8
國內調達 原料의			
(i) 높은 價格이 原價上昇의 原因이 되는 경우	412	231	56.1
(ii) 低品質이 製品의 저품질 원인이 되는 경우	433	292	67.4
原料 輸入의 問題點			
(i) 價格引上을 위해 相對方이 供給量 조작	74	11	14.9
(ii) 物量確保를 위해 높은 在庫維持費 필요	75	43	57.3
(iii) 輸入에 높은 附帶費用 必要	70	28	40.0
(iv) 輸入은 不安定的 供給源임	76	22	28.9

13) 물론 이 경우는 좁은 市場과 政府의 保護政策에 의하여 獨寡占의 地位를 獲得하게 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임.

14) 프랑스의 경우는 從業員規模 10~49人에서 50%이상의 市場占有率을 가진 企業의 比重이 7%에 불과한(金載元 外, 『유럽의 中小企業과 金融支援制度』, 韓國開發研究院, 1982. 11, p.19).

려하고 있는 것이 一般的 傾向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受給企業에 대한 技術的 信賴도가 낮은 것이 그 理由인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專門部品(또는 그 附屬品) 生産者들(受給企業)은 그들의 供給處가 母企業(製品의 最終生産者)인 것을 選好하고 있다[즉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用 生産을 選好]. 이는 部品組立企業(1次 受給企業)에 대한 信賴도가 낮은 것이 한 理由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母企業과의 直接去來를 經濟的 地位의 格上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母企業들(특히 自動車産業에서)은 部品組立工程(sub-assembling)을 直接 갖추는 경우가 많게 되며, 이는 生産의 分業이 그만큼 細分化됐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生産의 分業이 그만큼 細分化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專門도가 낮으며 또 市場이 좁기 때문에 單一品目の 生産만으로는 企業經營에 많은 隘路(利潤 및 安定的 市場確保)가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한 企業이 여러 品目の 生産에 參與하게 되고 따라서 여러개의 母企業과 去來하게 되는 現象을 睹게 된다. 이는 專門化 增進에도 否定的 效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受給企業間 不必要한 過當競爭을 誘發하게 되어 分業의 效果(規模의 經濟效果 및 資源의 效率的 利用)를 크게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끝으로 非受給企業의 상당부분(61.2%)이 受給을 希望하고 있음을 우리는 標本調査의 結果로 알 수 있었다. 이는 都給幹旋機構를 좀더 活性化하고 都給에 대한 情報를 提供하여 受給企業間 健全한 競爭을 도모토록 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 都給組織의 形態

專門受給企業의 育成을 위한 都給組織의 運營에 있어서는 母企業으로부터 受給企業에 대한 直接支援(技術指導, 經營指導, 原料供給 등)이 매우 效果的이라는 것이 日本의 制度에서 判明된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制度의 導入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 理由는

첫째, 母企業의 理解不足으로 母企業으로부터의 支援努力이 微弱하고 둘째, 母企業의 受給企業에 대한 支援能力이 貧弱하여 都給組織에 대한 위와 같은 運營이 現在로서는 별로

〈表 3〉 都給去來의 形態

	標本の 크기	해당企業數	比 重(%)
受給企業의 數	501	347	69.3
受給의 形態(都給의 深度)			
(i) 1次下請의 경우	305	245	80.3
(ii) 2次以上の 下請의 경우	305	22	7.2
(iii) 其 他	305	38	12.5
受給의 種類			
(i) 部品 生産(企業分業的 都給)	332	148	44.6
(ii) 完製品(商業的 都給)	332	123	37.0
(iii) 部品生産者中 2次下請企業數	148	22	14.9
去來母企業의 數가 5個以上인 경우	340	120	58.8
非受給企業中 受給希望 企業數	152	93	61.2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受給企業들이 母企業으로부터 受給을 받을 수 있는 重要한 理由로는 低廉한 納品價格보다는 높은 品質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母企業과 受給企業間的 거리는 큰 問題가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受給에 있어 價格보다는 品質이 더 重要한 要素라고 생각하는 理由는 지금까지의 國內都給이 低廉한 賃金 때문에 價格에는 큰 問題가 없었고 오히려 品質이 問題가 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며,

母企業과 受給企業間的 거리가 問題가 되지 않는 理由는 地政學的으로 狹小한 國土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事實은 우리가 日本의 都給組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母企業과 受給企業間的 資本 및 經營系列化를 통해 協力을 增進하는 形式의 都給組織 運營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目的을 위한 政策支援은 별로 效果를 얻지 못할 것이며 또 母企業과 受給企業間的 거리가 都給去來에서 아

〈表 4〉 都給組織의 形態

	標本의 크기	해당企業數	比 重(%)
母企業으로부터의 支援이나 協력이 별로 效果가 없다고 응답한 企業數			
(i) 技術 指導	305	193	63.2
(ii) 經營 指導	300	239	79.7
(iii) 資金 支援	305	255	84.7
(iv) 設備 貸與	299	268	89.6
(v) 原料 供給	303	232	76.6
(vi) 技術改善 開發의 相互協力	301	196	65.1
(vii) 融資 保證	300	262	87.3
受給을 받을 수 있는 主要 理由	298(平均)		
(i) 좋은 品質		153	51.3
(ii) 專門 生産技術 保有		153	51.3
(iii) 納期 遵守		144	48.3
(iv) 오랜 去來實績		124	41.6
(v) 特殊 設備 保有		64	21.5
母企業으로부터 資本參與가 있는 企業數	369	21	5.7
*母企業으로부터 資本參與가 있어도 經營이 完全獨立의인 企業數	18	11	61.1
國際下請의 主要 動機	118(平均)		
(i) 迅速한 代金決濟		45	38.1
(ii) 販路 解決		28	23.7
(iii) 長期 契約(安定的 去來處)		16	13.6
(iv) 技術 支援		15	12.7
國際下請을 받을 수 있는 重要理由	114(平均)		
(i) 低賃金		40	35.1
(ii) 專門 生産技術의 保有		31	27.2
都給去來上의 重要隘路 事項	245(平均)		
(i) 母企業으로부터의 支拂遲延		51	20.8
(ii) 母企業으로부터의 單價引下		50	20.4
(iii) 不當한 納期 要求		26	10.6

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母企業과 受給企業間的 거리를 短縮시켜 주기 위한 政策的 配慮가 불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實際에 있어 母企業으로부터 受給企業에 관한 資本參與가 있는 경우가 5.7%에 不過하며 이 중 61.1%는 母企業으로부터 資本參與가 있어도 經營에 있어서는 完全獨立의이라고 말하고 있다.

國際都給의 動機에 있어서는 迅速한 代金決済가 가장 중요한 理由를 이루고 있다. 都給 去來上의 重要 隘路事項들로는 母企業으로부터의 支拂遲延, 單價引下, 不當한 納期要求 등이 꼽히고 있으나 우리가 一般的으로 期待 하였던 것처럼 深刻성을 띤 것 같지는 않았다.

마. 企業經營上의 隘路

우선 필요資金의 用途를 보면 運轉資金이 絕對的인 比重을 점하고 있다. 이것은 中小企業들이 대개의 경우 生存의 問題 즉 短期的인 問題에 直面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政府의 支援政策도 金融支援에 重點을 두고 있음을 發見하게 된다. 資金調達の 手段도 銀

行利用이 大部分이며 株式會社의 形態를 취한 企業이라고 하더라도 直接金融(株式, 會社債, 其他 CP)의 手段을 利用한 中小企業은(株式會社의 組織形態를 가진 企業中) 21.7%에 不過한 實情이다. 또 銀行利用率도 規模에 따라서 差異가 있으며 小規模企業에서는 親舊나 親知로부터의 借入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銀行利用에 있어서 높은 附帶費用이나 利率은 큰 問題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銀行利率이 私債市場에서의 實質利率보다 더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바. 技術開發의 推進現況

위에서도 指摘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中小企業들은 우선 生存이 企業經營의 主關心對象이 되고 있으며(運轉資金의 調達이 企業經營에 가장 重要한 問題로 登場하고 있음) 技術開發이 生存을 위해 가장 중요한 手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發達되어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이는 中小企業들이 技術開發을 위한 體制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專門要員을 確保하지 못하고 있으며 技術開發費의 支出에 있어서도 그것이 賣出額의 0.5%未滿인 경우가 61.6%

〈表 5〉 企業經營上의 隘路

	標本의 크기	해당企業數	比 重(%)
政府支援 政策的 効果	502		
(i) 전혀 없다		172	34.3
(ii) 金融 支援만 받고 있다		164	32.7
資金 調達手段	505		
(i) 銀行 貸出(어음할인 포함)		443	87.7
(ii) 친구, 친지 또는 가까운 친척		247	48.9
(iii) 私債 市場		83	16.4
銀行 利用時의 問題	428(平均)		
(i) 擔保 不足		218	50.9
(ii) 까다로운 節次		119	27.8

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즉 中小企業의 技術開發體制는 形式的이며 별로 效果가 없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中小受給企業들은 母企業과의 技術協力이 매우 效果의 일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반면 技術協力の 方法에 있어서는 매우 懷疑의이다.

母企業으로부터 技術者派遣이나 技術人 教育과 같은 直接的인 技術指導에 있어서는 否

定的 反應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母企業과의 長期契約에 의한 安定的 生産이 可能해질 수 있기를 希望하고 있는 企業이 많았다. 또 輸入代替의 경우에 있어서는 母企業의 積極的인 輸入代替 努力이 不足하며 價格과 品質面에서 현저하게 有利해야만 輸入代替가 可能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側面에서는 政府와 母企業으로부터의 直接的인 支援이 要請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受給

〈表 6〉 技術開發의 推進現況

	標本의 크기	해당企業數	比 重(%)
技術開發體制 現況	492		
(i) 獨自의 專門體制를 가지고 있는 企業		328	66.7
(ii) 獨自의 專門體制및 專門要員을 確保하고 있는 企業		136	27.6
研究開發費의 賣出金에 대한 比率	414		
(i) 0.5% 미만		255	61.6
(ii) 0.5%~2%		113	27.3
(iii) 2%~3%		15	3.6
(iv) 3% 以上		31	7.5
母企業의 技術協力에서 效果가 있을 것으로 期待하는 企業數			
(i) 新製品 開發	295	255	86.4
(ii) 品費 改善	292	263	90.1
(iii) 原價 節減	287	221	77.0
(iv) 新工程 導入	279	212	76.0
(v) 工程 改善	283	225	79.5
母企業과의 協力外에 技術開發體制現況 * 自社 單獨으로	504	323	64.0
受給企業들이 希望하는 母企業과의 技術協力 方法	286(平均)		
(i) 技術者 파견		66	23.1
(ii) 技術人 教育		56	19.6
(iii) 設備 貸與		55	19.2
(iv) 海外 研修 주선		54	18.9
(v) 品質 檢査		68	23.8
母企業에서의 生産計劃 不安定이나 無計劃이 受給企業에서의 技術開發을 無意味하게 한 경우	314	160	51.0
受給企業에서 輸入代替用製品을 開發했을 때 母企業은	267		
(i) 積極的으로 輸入代替에 努力		46	17.2
(ii) 價格과 品質이 현저하게 有利해야 可能		121	45.3

企業에 대한 技術情報의 提供, 都給의 斡旋 등을 積極的으로 推進하여야 될 것이다.

사. 受給品目的 生産組織

受給企業의 生産活動을 品目別로 보면 國內市場의 60% 이상을 접하는 品目數는 24.7% 에나 달하고 있으나 그 生産이 再下請에 依存하는 경우는 18.1%에 不過하여 都給의 深度

(生産의 迂廻度)는 貧弱하다는 것이 다시 立證되었다. 再下請에 依存하는 理由로는 專門生産者의 專門技術 利用이 가장 重要한 理由이지만 設備不足도 重要한 理由中的 하나를 構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 受給의 方法 및 價格決定

우선 單價決定에 있어서는 母企業의 立場이

〈表 7〉 受給品目的 生産組織

	標本의 크기	해당品目數	比 重(%)
國內市場의 60% 이상을 접하는 品目數	523	129	24.7
再下請에 의존하는 品目數	526	95	18.1
再下請을 주는 理由			
(i) 生産設備不足	85	25	29.4
(ii) 專門技術利用	88	48	54.5

〈表 8〉 受給의 方法

	標本의 크기	해당品目數	比 重(%)
受注單價 決定方法	516		
(i) 雙方間의 合意를 원칙으로 하나 母企業의 立場이 強하게 반영된다.		(307) { 238	(59.5) { 46.1
(ii) 母企業이 일방적으로 決定한다.		69	13.4
(iii) 受給企業의 立場도 強하게 반영된다.		173	33.5
(iv) 入札에 의한다.		26	5.0
(v) 其 他		10	2.0
代金 決濟 問題	502		
(i) 尙상 어려운 문제임		(279) { 118	(37.3) { 23.5
(ii) 過去부터의 慣行이어서 큰 문제인 줄 모르겠다.		161	32.1
(iii) 큰 困難 없음		26	5.2
(iv) 其 他		197	39.2
競爭 受給 企業數의 變動	505		
(i) 增 加		144	28.5
(ii) 별로 變하지 않았다.		318	63.0
(iii) 減 少		34	6.7
(iv) 其 他		9	1.8
受給 企業間 素材 共同購入 등의 協同이 없는 경우	517	458	88.6
販賣市場의 多岐化(去來母企業數) 정도(1981年)	490		
(i) 70% 이상을 單一母企業에 納品하는 경우		241	49.2
(ii) 主去來 母企業이 不明인 경우		104	21.2
(iii) 母企業에의 納品과 同時 市場販賣도 하는 경우		145	29.6

절대적으로 反映되는 경우가 59.5%나 된다. 이는 短期에 있어서 母企業과 受給企業이 協力하여 對外競爭에 임하는 데는 強點이 있으나 長期에 있어 中小受給企業의 育成을 위해서는 負의 效果를 招來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母企業이 納品單價를 一方的으로 決定하면 受給企業의 創意성에 큰 타격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代金決濟의 遲延問題는 우리가 一般的으로 期待하였던 것보다 深刻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都給去來에서 慣例化 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都給組織의 量的 擴大는 最近 數年間 별로 進展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受給企業間 協力關係가 별로 發展되지 못한 것이 重要問題로 나타나고 있다. 販賣市場의 多岐化(去來母企業數의 增加)도 최근 수년간 별 變動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자. 生産技術의 水準

生産技術에 있어서는 一般汎用機의 사용비율로 보아 專門化의 細分性은 貧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都給의 重層構造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理由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設計圖의 作成에 있어서는 母企業 單獨으로 또는 母企業의 相談을 받는 경우가 59.2%나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都給去來의 特徵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밖의 生産技術에 영향을 주는 問題點들, 예를 들어 素材의 質, 素材의 價格, 技術人力, 生産設備 등은 期待했던 바와 같이 深刻한 것은 아니었다.

2. 都給組織 및 支援制度上的 問題點

가. 一般的 問題點

1) 時間上的 隘路

都給組織의 增進은 專門生産技術을 保有한 多數의 競爭의 中小受給企業의 바탕을 그 前提로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① 近代의 企業經營의 歷史 日淺

② 機械工業 育成의 歷史 日淺

으로 充分한 生産技術의 蓄積을 成就한 中小 專門生産企業의 層이 貧弱한 것이 現實이다. 특히 中小企業 經營者들의 대부분이 創業者로서 先代로부터 물려받은 技術을 가지고 있지 못한 實情이다.

또 대부분의 中小企業 經營者들이 技術系出

〈表 9〉 生産技術의 水準

	標本의 크기	해당品目數	比 重(%)
現在 使用하고 있는 機械設備	526		
(i) 비교적 專門機械		261	49.6
(ii) 一般的 汎用機		245	46.6
(iii) 간단한 道具나 機械		20	3.8
設計圖 作成	522		
(i) 母企業이 單獨으로 또는 母企業의 相談을 받는 경우		276	52.9
(ii) 自社에서 대부분 또는 自社單獨으로 하는 경우		202	38.7
(iii) 其他		44	8.4

身이 아니기 때문에 技術問題 解決에 隘路가 많다. 다시 말해서 技術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技術職에 從事하는 技術人力을 따로 雇傭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되면 雇傭된 技術人은 問題解決(競爭力 向上을 위한 技術의 開發 및 革新)에 있어서 自己 自身의 問題처럼 深刻하게 行動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技術開發에 있어서 中小企業이 大企業에 대하여 갖는 優位性(積極性 및 機敏性)을 잃게 되는 結果를 招來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유럽의 中小企業制度中에서 小規模의 專門企業들이 잘 發達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特色으로 들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現象은 유럽 各國이 일찍부터 徒弟制度(apprentice system)가 잘 發達된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¹⁵⁾. 따라서 企業의 創業歷史가 길수록 蓄積된 技術이 많고 그렇게 되면 受給의 機會도 많게 될 것임은 쉽게 추측이 가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近代의 產業構造의 歷史가 너무 짧기 때문에 受給의 機會와 企業의 創業歷史와는 相關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10〉을 보면 첫째, 受給與否와 創業年度

는 負의 相關關係 즉 受給企業들이 오히려 創業年度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受給與否와 企業의 經營歷史(現 經營人이 創業者인가 또는 2世以下의 經營人인가?)와는 相互 獨立의임이 立證되었다. 이와 같은 現象은 우리나라 機械工業에서의 많은 中小企業들이 1970年代 以後에 機械工業을 위시한 重化學工業 育성과 더불어 創業되었으(標本調査에서는 1970年 以後에 創業企業이 全體의 59.4%임), 創業이 受給活動을 前提로 하였기 때문이다. 또 企業의 承繼가 技術의 傳承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經營人이 2世, 3世로 넘어가도 專門性이 深化되어 가지 못하고 따라서 受給機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結果를 招來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受給 및 非受給企業 經營人の 學歷을 比較하여 보면 受給企業 經營人の 學歷이 더 높고 또 工學의 教育背景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受給企業들의 專門化에 밝은 展望을 보여 주고 있다. 왜냐하면 工學을 教育背景으로 한 技術人에 의한 創業은 技術革新에 좋은 刺戟劑가 되어 生産의 專門性 提高에 크게 이

〈表 10〉 企業背景에 있어서 受給與否와의 相關關係

變 數 名	項目數 (N)	標本의 크기 (n)	Kendall's τ	備 考
企業의 創業年度	6	501	-0.1542**	
企業의 經營歷史	3	402	-0.011	經營人の 種類를 創業者, 2世經營人, 3世經營人の 3項目 (N=3)으로 區分하였음
經營人の 學力	8	501	-0.1931**	
經營人の 專攻	2	403	0.0913*	高卒以上の 學力者를 ①工學과 ②非工學으로 2分化(dichotomy)했음

註: 1) 標本企業을 注文生産 參加與否에 따라 ①受給 ②非受給 企業으로 區分하였음.

2) 項目에 대한 상세한 事項은 金栽元, 『機械工業에서의 都給去來增進方案에 관한 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83. 2. 參照.

3) *와 **는 각각 有意水準 5% 및 1%에서 歸無假說($H_0: \tau=0$)의 棄却을 意味함(H_0 의 例; 受給과 非受給 企業의 區分은 企業의 創業年度와 獨立의이다).

15) 金栽元 外, 『유럽의 中小企業 및 金融支援制度』, 韓國開發研究院, 1982. 11.

바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專門技術人에 의한 專門受給企業의 育成을 위해 創業 및 轉業支援, 經營指導, 情報提供 등의 支援制度가 整備되어 있지 못한 것은 制度上的 問題點으로 指摘되고 있다.

2) 母企業의 受給企業에 대한 支援能力 微弱

理想的인 中小受給企業의 育成方法은 母企業이 受給企業들에 대하여 技術, 資金 및 施設支援을 直接 擔當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① 母企業이 受給企業에 대해 技術指導를 할 수 있을 정도의 蓄積된 技術이 없고

② 母企業 自體의 財務構造 虛弱으로 受給企業에 대한 資金, 施設, 原資材에 대한 支援能力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母企業들은 受給企業에 대한 支援努力도 不足한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

3) 企業意慾(entrepreneurship)의 低下

企業을 直接 經營하는 것이 他企業에 雇傭되어 있는 경우보다 所得이 높거나(金錢的 動機) 企業經營에서 가질 수 있는 自負心(非金錢的 動機)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經濟與件으로 인해 企業意慾이 크게 침체되어 있다. 특히 高度成長의 타성에 젖어 短期의 高利潤率만을 期待하는 나머지 長期投資, 經營改善을 통한 利潤率 提高, 長期計劃에 의한 技術蓄積 및 技術開發에 대한 努力 등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4) 市場의 狹小

所得水準이 낮고 機械工業이 아직 크게 發達된 段階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專門受給企

業에 대한 國內市場이 發達되지 못한 것이 事實이다. 都給市場이 잘 發達되지 못한 證據로는

첫째, 非受給企業(全體 標本企業의 30.7%) 中 61.2%가 受給을 希望하고 있으며

둘째, 從業員規模 19人以下의 小規模企業中 18.7%가 60%以上の 市場占有率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市場狹小의 問題는 技術革新에도 중요한 制約要因이 되고 있다.

또 現時點에서는 國內의 技術水準도 높지 못한 편이기 때문에 國際下請도 크게 普及되지 못한 實情이다.

5) 經濟政策間的 相衝

지금까지의 成長政策이 輸出에 크게 依存하여 왔고 또 輸出增進을 위하여서는 輸出商品의 品質向上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國內의 部品專門生產企業이 未發達된 狀態에 있는데다가 素材産業의 脆弱으로 輸出商品의 品質向上을 위하여서는 部品 및 原資材의 大部分을 輸入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海外市場에서의 競爭力 強化를 위해 費用節減이 要求되었으며 이를 위해 規模의 經濟效果를 강조하게 되었다. 그 結果 中小企業의 育成은 政策의 優先順位에서 밀려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다시 말해서 短期에 있어서 輸出의 增進政策과 長期間이 所要되는 中小專門受給企業의 育成과는 相衝的인 立場에 있는 셈이다. 그러나 輸出이 主導하는 成長政策이 政策의 最優先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中小專門受給企業의 育成은 相對的으로 가볍게 다루어져 온 것이 事實이었다.

6) 受給企業間的 協力基盤 虛弱

受給企業間的 協力問題는 두 가지 側面에서

重要な意義를 갖는다.

첫째는, 生産의 分業을 形成하고 있는 集團의 一員으로서 어느 한 企業製品的 質的 失敗는 完成製品 全體의 質的 問題를 惹起하게 되며 이는 分業體制를 形成하고 있는 受給企業 全體에 影響을 미치게 되므로 企業間 協力을 통한 共同意識의 高취는 都給組織 增進에 매우 重要な 要素이다.

둘째, 中小企業은 大企業에 비하여 經濟力이 弱하므로 企業間 協力を 통하여 原料의 共同購買, 技術開發 共同投資, 生産設備의 共同利用 등을 이루어 生産費의 節減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企業間的 協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現實이다.

나. 支援制度上的 問題點

1) 金融支援 制度

中小企業의 育成을 위한 支援制度는 여러가지 形態로 잘 마련되어 있으나 이들 制度들이 目標하고 있는 것과 實際의 施行節次 및 效果 사이에는 큰 隔差를 보이는 것이 現實이다. 中小企業을 위한 金融支援制度가 그 두드러진 예이다.

中小企業에 대한 金融을 위하여서는 中小企業銀行이나 國民銀行과 같이 中小企業 또는 小零細企業을 專擔하는 專門金融機關이 設立·運營되고 있다. 또 그외에도 各 市中銀行과 地方銀行들은 義務貸出比率이라 하여 總貸出

殘額의 一定比率(市中銀行의 경우는 35%, 地方銀行은 55%임)을 中小企業에 割愛하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中小企業銀行, 國民銀行 및 5個 市中銀行과 10個 地方銀行의 對中小企業 貸出比率은 <表 11>에 要約되어 있는 바와 같다. 이 表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는 金融機關의 對中小企業 貸出比率이 1970년에 25.9%이던 것이 1975년에 29.8% 그리고 1980년에 그것이 또다시 增加되어 44.2%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中小企業에서의 資金難이 大企業과 比較하여 相對的으로 더 深刻할 아무런 理由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그 內容을 좀더 자세히 分析하여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重要な 問題點들을 發見하게 된다.

첫째, 總金融貸出에 外換銀行分과 韓國產業銀行分을 包含시키면 中小企業에 대한 金融貸出比率은 크게 減少하게 되는 것이다. <表 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外換銀行만 包含시켰을 경우에는 그것이 平均 36.2%가 되고 韓國產業銀行까지를 包含시키면 그것이 더욱 낮아져서 平均 26.3%에 不過하게 된다.

둘째, 우리는 中小企業에서 經營上的 隘路點中 販賣代金 回收의 遲延이 상당히 큰 比重으로 登場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中小企業實態調查報告(表 13 참조)에 따르면 製造業에 從事하고 있는 全中小企業中 약 35%가 代金回

<表 11> 金融機關¹⁾의 中小企業資金 貸出比率²⁾

(단위: %)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貸出比率	25.9	24.2	24.2	26.1	25.8	29.8	39.0	40.2	41.6	43.1	44.2

註: 1) 中小企業銀行, 5個市中銀行, 10個地方銀行, 國民銀行.

2) 貸出比率=中小企業貸出金/總貸出金

資料: 中小企業振興公團, 『中小企業經濟指標』, 1981.

〈表 12〉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比率(韓國外換銀行과 産業銀行을 包含한 경우)
(단위: %)

	中小企業貸出 總貸出(1)	中小企業貸出 總貸出(2)
1966	38.6	24.2
1969	40.5	26.5
1972	37.1	29.6
1975	29.0	23.1
1977	36.0	28.3
平 均	36.2	26.3

註: 總貸出(1)은 5個 市中銀行: 10個 地方銀行, 中小企業銀行, 國民銀行, 外換銀行으로부터의 貸出을 포함하며, 總貸出(2)는 上記한 銀行들과 韓國産業銀行으로부터의 貸出을 포함함.

資料: Jae Won Kim, "CES Production Functions in Manufacturing and Problems of Industrialization in LDC's" KDI Working Paper 8106, 1981.

〈表 13〉 中小企業의 外上賣出現況
(단위: %)

	代金回收遲延이 隘路 인 企業		外上販賣가 70% 以上 인 企業	
	3. 製造業	38. 組立金屬 製品, 機械 및 裝備 製造業	3. 製造業	38. 組立金屬 製品, 機械 및 裝備 製造業
1976	34.2	38.7	38.8	42.6
1978	33.3	43.9	—	—
1980	37.4	41.4	41.5	55.6

資料: 中小企業銀行, 『中小企業實態調查報告』, 1976~1980.

〈表 14〉 企業資金에 있어서 受給與否와의 相關關係

變 數 名	項目數 (N)	標本의 크기(n)	Kendall's τ	備 考
資金調達手段	2	501	-0.0830*	
(i) 銀行貸出				
(ii) 私債市場			0.0755*	
緊急한 資金의 用途	3	501	-0.0109	
(i) 運轉資金				
(ii) 設備投資(需要增加에 따른)				
(iii) 設備改替				
(iv) 設備投資(需要增加를 기대한)				
(v) 設備投資(資産增殖의 手段)				
(vi) 技術開發을 위한 施設投資				
(vii) 工程革新(新開發設備의 導入)			-0.1077**	
			-0.1323**	
			-0.1604**	
			-0.0884*	

註: 1) 標本企業을 注文生産 參加與否에 따라 ①受給 ②非受給 企業으로 區分하였음.

2) *, **은 各各 有意水準 5% 및 1%에서 歸無假說($H_0: \tau=0$)의 棄却을 意味함.

3) 項目에 관한 자세한 것은 金栽元, 『機械工業에 있어서 都給去來增進方案에 관한 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83.2 參照.

收의 遲延이 企業經營의 重要한 隘路要因이라고 指摘하고 있다. 機械工業에서는 그것이 한 층 높아서 약 40%에 이르고 있다. 또 總賣出額中 外上販賣가 70% 以上인 企業이 全製造業의 경우 약 40%에 이르고 있으며, 母企業에의 納品을 주로 하는 機械工業에서는 그 比率이 더욱 높아서 1976년에는 42.6%, 1980년에는 그것이 55.6%에 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가 〈表 13〉에서 볼 수 있는 바는 우리나라의 中小企業中 상당 부분의 企業들에 外上販賣 및 그 代金の 回收遲延으로 인한 資金難이 經營上의 重要한 隘路要因이라는 점이다. 물론 위에서 본 外上販賣가 모두 中小受給企業들이 母企業에 納品하고 代金決済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意味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서 外上販賣中에는 直接消費者 또는 中間都賣商에의 販賣도 상당부분이 될 것이다. 그 중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母企業에 納品하고 代金の 決済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렇

다면 金融機關이 中小企業에 대하여 貸出한 것 중 상당부분은 大企業이 中小企業에 決濟하여야 할 資金의 一部를 金融機關이 대신 決濟한 것과 그 效果上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다. 中小企業은 오히려 遲延代金에 대한 利子를 받지 못하면서 그 대신으로 받은 金融貸出에 대하여서는 利子를 支拂하여야 하는 負擔을 걸머지는 結果를 招來하고 있는 形便인 셈이다. 이렇게 볼때 中小企業은 大企業에 비해 金融惠澤을 덜 받고 있다는 것이 自明해진다.

더구나 金融의 慣行이 擔保爲主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擔保能力이 充分한 一部 中小企業을 除外한 많은 中小企業들이 그나마의 金融惠澤조차 쉽게 받을 수 없다는 것이 一般的 實情이다. 그뿐만 아니라 中小企業에 대한 施設金融도 그 貸出期間이 짧기 때문에 製品生産이 시작되기 전에 償還期間이 到來하여 資金壓迫을 加重시키고 있으며, 또 國內素材産業의 未發達로 많은 原資材의 경우에는 輸入에 依存하여야 하는 實情이어서 安定的 原料供給을 위하여서는 一定水準의 在庫維持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在庫金融이 要請되게 되어 資金需要가 더 한층 增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機械工業에서 中小企業들의 資金調達 手段中 가장 重要的 것은 역시 銀行貸出(어음割引 包含)이다¹⁶⁾. 資金調達 手段과 受給與否와의 關係를 보면 <表 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受給企業일수록 銀行을 利用

하고 非受給企業일수록 私債市場을 더 많이 利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受給企業들이 非受給企業에 비해 近代的 經營技法에 의한 企業運營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受給企業이 非受給企業보다 政府施策의 受惠範圍가 넓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 資金需要面에서 보면 運轉資金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모든 用途의 資金需要에서 受給企業이 非受給企業보다 더 緊急하게 생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運轉資金에 대한 需要는 모든 企業에서 緊急하게 要請되고 있는데 대해 設備投資, 老朽施設改替, 技術開發投資 등을 위해서는 受給企業이 더 資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受給企業 育成을 위한 與件造成에 좋은 現象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資金調達の 規模別 分布(表 15)를 볼 것 같으면 中小企業中에서도 規模가 클수록 銀行이나, 會社債 및 CP 등 直接金融의 利用率이 높고 規模가 작을수록 家族·親戚·親知로부터의 借入에 依存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中小企業 支援政策이 中小企業中에서도 規模에 따라서 不平等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으로 小規模專門中小企業 育成을 위해 바로잡아야 할 問題點으로 指摘되고 있다.

2) 租稅 및 關稅制度

受給企業의 경우 納品과 決濟 사이에는 一定한 間隔이 있으나 附加價值稅는 納品을 위한 出庫와 同時에 決定되고, 納稅는 代金決濟 期間과 相關없이 法律이 정하는 期間內에 納付하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資金壓迫도 적지 않은 實情이다¹⁷⁾.

16) 本 標本調査에서는 中小企業中 87.7%가 銀行貸出利用 經驗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7) 公開法人에 비해 非公開法人은 高率의 法人稅를 納付하여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個人企業 또는 非公開法人인 中小企業들은 法人稅 負擔上 不利한 立場에 있었으나 1982年度 法人稅法改正으로 이러한 問題는 是正되었음.

〈表 15〉 資金調達 手段의 規模別 分布

	銀行貸出(어음할인 포함)	가족·친척으로부터의 借入	친구·친지로부터의 借入	私債市場利用	會社債 및 CP發行	母企業으로부터 支援	企業 規模別 分布
1~ 9人	24(57.1)	25(59.5)	17(40.5)	9(21.4)	3 (7.1)	1 (2.4)	(42=100)
10~ 19人	40(80)	23(46)	25(50)	13(26)	3 (6)	4 (8)	(50=100)
20~ 29人	35(77.8)	19(42.2)	17(37.8)	12(26.7)	2 (4.4)	—	(45=100)
30~ 49人	70(88.6)	22(27.8)	21(26.6)	13(16.5)	9(11.4)	2 (2.5)	(79=100)
50~ 99人	111(92.5)	20(16.7)	18(15)	15(12.5)	15(12.5)	9 (7.5)	(120=100)
100~199人	113(96.6)	14(12.0)	23(19.7)	12(10.3)	11 (9.4)	6 (5.1)	(117=100)
200~299人	36(94.7)	1 (2.6)	2 (5.3)	6 (5.1)	8(21.1)	2 (5.3)	(38=100)
300~499人	12(92.3)	—	—	3(23.1)	4(30.8)	2(15.4)	(13=100)
合 計	441	124	123	83	55	26	
r_s ;	0.81	-1	-0.95	0.50	0.83	0.52	
H_0 ;	Rej	Rej	Rej	Rej	Rej	Rej	

註 : 1) r_s = spearman's r .

2) H_0 ; 해당 資金調達手段은 企業의 規模와 獨立의이다.

3) Two-sided Test, $\alpha=0.05$, $r=0.3620$ ($n \geq 30$)

4) 各企業은 重要資金調達手段을 3個以內로 응답하였음.

5) () 안은 規模別 總企業數中 해당 設問에 대답한 企業의 比重임.

〈表 16〉 指定系列化 品目生産 與否와의 相關關係(1)

變 數 名	項 目 數 (N)	標本의 크기 (n)	Kendall's τ
母企業과의 相互協力			
(i) 技術指導	6	291	-0.0302
(ii) 經營指導	6	286	-0.0028
(iii) 資金支援	6	287	-0.0235
(iv) 機械設備貸與	6	285	-0.0094
(v) 原料供給	6	289	-0.0480
(vi) 技術改善, 開發등의 相互協力	6	287	-0.0832
(vii) 融資保證	6	286	-0.0220
都給理由(受給企業側 判斷)			
(i) 資本의 系列關係	3	286	-0.0857
(ii) 過去의 去來實績	3	286	-0.0305
(iii) 母企業과의 거리	3	286	0.0895
(iv) 저렴한 價格	3	282	-0.0107
(v) 높은 品質	3	287	0.0878
(vi) 納期 준수	3	287	0.0784
(vii) 專門機械 設備의 保有	3	285	0.0029
(viii) 母企業의 設備부족	3	285	-0.0478
(ix) 專門生産技術의 보유	3	287	0.1279

註 : 1) 受給企業中에서 指定系列化 品目を 生産하지 않으면 ①非指定業體로, 生産하면 ②指定業體로 區分하였음.

2) *와 **는 各各 有意水準 5%와 1%에서 歸無假說($\tau=0$)의 棄却을 意味함.

3) 項目에 關한 상세한 것은 金栽元, 『機械工業에서의 都給去來增進方案에 關한 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83.1 參照.

또 受給企業이 輸出用製品의 部品을 生産·納品하고 있는 경우 이들 中小企業들은 母企業을 통해 關稅를 還給받고 있기 때문에, 還給節次가 複雜할 뿐 아니라 所要期間도 길어서 이로 인한 資金壓迫도 적지 않은 實情이다. 더구나 受給企業側에서는 生産 및 納品の 義務를 完了하였어도 母企業側의 事情으로 輸出履行이 안 되었을 경우, 이들 受給企業들은 關稅還給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3) 指定系列化 品目の 指定

우리 나라에는 都給組織의 增進을 法的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해 系列化 促進法 등 法體系가 整備되어 있음은 앞서서도 說明하였다. 또 法體系를 비롯한 諸制度와 그같은 制度들이 目的하는 現實的 效果間에는 隔差가 있다는 것도 指摘하였다. 都給組織을 增進하기 위한 指定系列化 品目を 指定하는 것도 그 效果面에서는 例外가 아닌 것 같다.

系列化 促進法의 目的은 “都給組織의 增進을 통하여 分業體制를 確立”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母企業 및 受給企業 相互間의 利益을 도모” 할 수 있고 또 “中小受給企業을 保護”하여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에 寄與하는 데 있다(系列化 促進法 第1條의 內容). 우리가 여기서 關心을 갖는 部分은 都給組織의 增進을 통하여 分業體制를 確立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는 純粹 經濟的 意味를 갖는 것으로 分業體制가 確立되면 資源을 效率的으로 利用할 수 있고 技術開發에 有利한 面을 갖게 되며 品質의 向上과 生産費의 節減을 통해 對外競爭力을 強化할 수 있는 등 經濟的 利益이 따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經濟的 利益은 母企業과 受給企業에 適合하게 配分되어

야 할 것이며 配分方法은 經濟的 原理(또는 市場原理)에 立脚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都給去來의 特殊性(또는 市場의 不完全 機能) 때문에 中小受給企業이 不合理的(또는 不利한) 經濟的 地位를 갖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한해 中小受給企業에 대한 保護가 要請되기도 한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論議한 바 있다. 그리고 이같은 保護는 長期에 있어 都給組織의 增進을 支援하는 方法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目的을 위해 立案된 系列化 促進法의 內容中에서 가장 중요한 位置를 점하는 部分이 指定系列化 業種 및 指定系列化 品目の 選定이다. 商工部는 이미 1,038個 品目を 指定系列化 品目으로 選定 告示하였으며 1983年 上半期까지 262個 品目を 追加하여 1,300個 品目を 告示할 豫定으로 있다. 이제 이와 같은 指定系列化 品目の 選定效果를 보기로 한다.

都給去來도 一種의 經濟去來로서 一般의 經濟去來 行爲와 그 根本에 있어 同一하지만 母企業으로부터 受給企業에 대한 需要는 誘導된 需要(derived demand)로서 母企業과 受給企業이 協同하여 消費者의 最終需要에 응하게 된다는 점이 하나의 特殊性이다. 그렇기 때문에 都給去來에서는 母企業과 受給企業間의 協力關係가 특별히 強調되는 것이다. 따라서 都給組織의 成功的인 增進을 위하여서는 母企業과 受給企業間의 協력이 매우 重要視되고 있다.

이제 母企業과 指定系列化 品目を 生産하는 受給企業間의 協力關係를 보면 <表 1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指定系列化 品目の 生産與否와는 相關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商工部の 指定系列化 品目の 選

定은 母企業과 受給企業間的 協力關係에는 아무런 效果가 없다는 것이다. 또 受給企業들이 都給을 받을 수 있는 理由에 있어서도 指定系列化品目を 生産하고 있는 受給企業들이 母企業과 資本系列化關係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같은 受給企業들이 해당 모기업들과 특별히 오랫동안 去來해 온 實績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母企業과 가까운 距離에 位置하고 있지도 않고, 또 그밖에 저렴한 納品單價, 높은 品質, 納期遵守, 專門機械設備의 保有 등등에 있어서도 有利한 立場에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들 品目들은 受給企業體의 振興, 産業의 國際競爭力 強化,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특히 緊要하다고 認定(系列化 促進法 第5條)되기 때문에 指定系列化 品目으로 選定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指定系列化 品目の 指定이 그 效果面에서 이와 같은 目的을 達成하기에 充分한가에 대하여는 많은 疑問이 提起되고 있다. 그 理由로는

첫째, 指定系列化 品目에 대하여서는 母企

業이 반드시 그 生産을 受給企業에 委託하여야 하고 母企業 스스로는 生産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系列化促進法 第5條 2項, 3項) 경우에 따라서는 母企業들이 經濟的 損失을 甘受하면서도 이들 品目에 대하여는 下請에 依存하여야 하는 不合理한 경우가 發生하게 되기 때문이며,

둘째는 위에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指定系列化 品目の 生産이 母企業과 受給企業間的 協力增進에 아무런 影響을 주지 못하고 있어 都給組織 增進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며 指定系列化 品目を 生産하는 受給企業들이 특별히 都給을 받는데 有利한 立場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制度가 硬直적으로 運用되면 오히려 負의 效果를 招來할 여지가 많으므로 伸縮性있고 誘因의 方法으로 運用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指定系列 品目の 指定이 이들 品目들을 生産하고 있는 受給企業들의 保護效果를 보면 <表 17>과 같다. 즉, 單價引下와 支拂遲延에

<表 17> 指定系列化 品目 生産與否와의 相關關係(Ⅱ)

變數名	項目數(N)	標本의 크기(n)	Kendall's τ	備考
都給去來의 隘路				
(i) 不當한 納期 요구	4	278	0.0437	
(ii) 單價 인하	4	278	-0.1206*	
(iii) 受領 거부	4	272	0.0087	
(iv) 支拂 지연	4	273	-0.1205*	
(v) 檢査基準 변경	4	275	-0.0433	
(vi) 去來處 변경위험	4	270	0.0117	
技術開發				
(i) 技術開發體制	5	327	0.0930*	
(ii) 技術開發費의 比重	4	293	0.0947*	①1%미만 ②1~2% ③2~3% ④3%이상
母企業의 生産計劃 不安定으로 인한 技術開發의 障隘	4	294	-0.1262*	

註: <表 16>의 註 參照.

관한 隘路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¹⁸⁾, 母企業과의 長期契約에 의한 安定供給과 그에 따른 技術開發에는 有利한 立場을 갖게 되어 保護의 效果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側面이 너무 強調되면 즉 過剩保護로 發展하면 母企業과의 協力關係가 무너지고 母企業에 타격을 주게 되어 對外競爭力 強化에 逆效果를 가져 올 염려가 따르게 될 것이다.

끝으로 指定系列化 品目으로의 指定與否와 受給競争 및 專門性과의 相關關係를 보기로 한다. <表 18>에서 보면 첫째, 指定系列化 品目は 受給競争이 치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競争이 치열하지 않은 理由가 法的 保護 때문인지 아니면 좁은 市場과 生産者의 專門性 때문인지는 確實하지 않다. 그러나 經濟의 基本運用 方向이 企業間 競争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法的 保護效果 때문에 競争이 抑制되는 것은 좋은 結果가 아니다. 오히려 法的 保護와 支援를 받을 수 있도록 企業間 競争을 強化하는 方向으로 誘導하여야 될 것이다. 또 만일 그것이 狹小한 市場과 生産者의 專門性 때문이라면 系列化 品目으로 指定하여 保護해 줄 理由가 없게 된다.

둘째, 指定系列化 品目の 生産의 경우에는 生産設備의 高度性이 要請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서는 政府의 支援과 保護가 아울러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指定系列化 品目の 生産에 있어서는 受給企業 自體에서 設計圖를 作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만일 受給企業들의 專門度에 基因하는 것이면 바람직한 일이나 앞에서도 指摘한 바와 마찬가지로 都給去來의 特殊性에 비추어 母企業과의 協力關係에 不利한 경우로 作用하여서는 안될 것이다¹⁹⁾.

다. 其他 都給組織의 問題點

1) 原料調達の 問題

受給企業中 原料를 완전히 國內에서 調達(100% 國內調達)하는 企業이 53.5%나 되고 50%以上을 國內調達에 依存하는 企業을 합치면 88.1%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國內調達原料의 價格이 높아 相對的 部品價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55.8%나 되고, 國內調達 原料의 品質이 낮아 製品의 質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71.0%나 되고 있다. 또 原料調達을 海外에

<表 18> 受給品目들의 商工部 指定與否와의 相關關係¹⁾

變 數 名	項目數 (N)	標本의 크기 (n)	Kendall's τ
受給競争	3	506	0.1116**
機械設備의 高度性	4	526	-0.1174**
製品設計의 主導	5	522	0.0335

註: 1) 受給品目을 ①非指定品目 및 ②指定品目으로 區分하였음.

2) **는 有意水準 1%에서 歸無假說($H_0: \tau=0$)의 棄却을 意味함.

3) 項目에 대한 상세한 것은 金裁元, 『機械工業에서의 都給去來增進方案에 관한 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83.2 參照.

18) 이 점에 대하여서는 다음에서 다시 설명함.

19) 예를 들어 部品の 生産이 母企業에 의해 미리 作成된 設計(pre-established specification)에 의해 生産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母企業이 獨占部品 生産者의 生産部品の 規格에 맞추어 最終生産物을 組立하면 對外競爭力에 問題가 발생하게 됨.

依存하는 경우에는 安定的 物量確保를 위해 높은 在庫를 維持하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在庫維持費가 必要하게 된다. 따라서 都給組織의 增進을 위하여서는 素材産業 未發達이 問題點으로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中小企業들은 一般的으로 海外 原料供給市場에 대한 情報가 豊富하지 못하고 輸入에 따르는 資金動員力이 적기 때문에 가능한 한 國產原料를 使用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中小企業의 育成은 原料의 國產代替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長期에 있어 中小受給企業의 育成을 위하여서는 素材産業의 育成을 통한 뒷받침이 중요한 政策의 課題가 아닐 수 없다. 또 國內調達이 불가능한 原料의 輸入을 위하여서는 原料의 在庫金融을 통한 支援이 필요할 것이다.

2) 代金決濟 및 單價決定의 問題

納品代金の 支給遲延과 母企業에 의한 納品 單價 引下要求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都給去來의 過程에서 發生하는 問題點들이다. 따라서 그의 解決을 위한 뚜렷한 妙方은 아직 없다. 다만 여기서는 그들 問題點들과 去來母企業數와의 相關關係를 보았다. <表 19> 및 <表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代金決濟의 問題와 單價決定 方法은 去來母企業數와 相關關係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一般的으로 去來母企業數가 많으면 母企業으로부터의 代金支給遲延의 問題를 쉽게 解決할 수 있고 또 單價引下 壓力에 쉽게 對應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왜냐하면 去來母企業數가 많으면 母企業과의 雙方

契約에서 受給企業側이 有利한 契約上의 地位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유럽에서 널리 利用되는 都給契約 形態이다²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꼭 이와 一致하고 있지 않음이 우리의 調査結果 밝혀졌다. 즉 우리나라 경우에는 主去來母企業이 있을 때 代金決濟의 遲延問題가 오히려 적게 일어나는 반면에 主去來母企業이 없이 여러개의 母企業과 去來할 때는 單價引下 壓力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去來母企業의 多樣化나 主去來母企業化를 통하여서는 위의 두 가지 問題를 同時에 解決하기 힘들다는 結論에 도달하게 된다. 또 都給組織을 어느 방향으로 誘導하느냐 하는 것도 現在로서는 判斷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事實의 類推를 통해서 問題를 把握하여야 될 것이다.

첫째, <表 21>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去來母企業數와 受給品目數와는 相關關係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去來母企業數가 많은 受給企業이 多種의 品目生産에 臨하고 있다. 그러나 <表 22>를 보면 去來母企業數가 많다고 해서 受給을 받는데 특별히 有理한 立場에 있지는 않다. 다만 規模가 比較的 클수록 多種의 品目を 生産하고 있다는 事實이 發見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受給企業들이 이와 같이 多數의 母企業과 去來를 하게 된 理由는 不安定한 市場 때문에 危險分散을 위해 한 企業이 多種의 品目を 生産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도 指摘하였다. 한개의 小規模 中小企業이 多種의 品目を 生産할 수 있는 것은 一般的으로 專門度가 낮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受給企業들의 專門度を 높이고

20) 金裁元 外, 『유럽의 中小企業과 金融支援政策』, 韓國開發研究院, 1982. 11.

〈表 19〉 代金決済의 문제와 去來母企業數(1981)

(品目數)

	1 個母企業에 100%納品	2 個以上母企 業主去來母企 業 70%	2 個以上母企 業主去來母企 業 없음	母企業과 市 場販賣併行	合 計	(%)
항상 어려운 문제임	18	42	13	40	113	(23.5)
불경기일때 특히 문제임	24	42	63	65	194	(40.4)
慣行이어서 困難 못느낌	43	60	21	30	154	(32.1)
困難없음	10	0	6	3	19	(4.0)
合 計	95	144	103	138	480	(480=100%)

註: $\tau = -0.162$ 로서 $H_0(\tau=0)$ 가 有意水準 1%에서 棄却됨.

〈表 20〉 受注單價決定方法과 去來母企業數(1981)

(品目數)

單價決定方法	母企業數 1 個母企業에 100%納品	2 個以上母企 業主去來母企 業 있음	2 個以上母企 業主去來母企 業 없음	母企業과 市 場販賣併行	合 計	(%)
母企業 一方的	16	20	10	19	65	(13.6)
母企業 立場强	58	73	38	59	228	(47.7)
受給企業 立場强	19	45	47	48	159	(33.3)
入 札	3	5	5	13	26	(5.4)
合 計	96	143	100	139	478	(478=100%)

註: $\tau = 0.132$ 로서 $H_0(\tau=0)$ 가 1%有意水準에서 棄却됨.

統計的 檢證時는 單價決定方法의 入札項目은 제외했음.

〈表 21〉 去來母企業數와 受給品目數와의 關係

(企業數)

母企業數	受給品目數						總 計
	1 個	2 個	3 個	4 個	5 個以上		
2 個 以 下	36	10	11	4	6		67
3 個 以 上	78	43	26	29	17		193
總 計	114	53	37	33	23		260

註: Kendall's $\tau = 0.09452$ 로 $H_0(\tau=0)$ 가 有意水準 5%에서 기각됨.

〈表 22〉 去來母企業數와 受給의 理由와의 關係

去來母企業數	資本의 系列關係		過去の 去來實績		母企業과의 가까운거리		低廉한價格 (납품단가)		높은 品質		納期遵守		專門機械 設備의 保有		母企業의 設備不足		專門的인 生産技術 保有	
	1, 2 개	3개 이상	1, 2 개	3개 이상	1, 2 개	3개 이상	1, 2 개	3개 이상	1, 2 개	3개 이상	1, 2 개	3개 이상	1, 2 개	3개 이상	1, 2 개	3개 이상	1, 2 개	3개 이상
전혀 關係 없다	56	192	22	53	47	158	30	111	9	29	8	45	35	106	42	149	17	38
이 요인을 배제 하지 못한다	8	13	19	67	10	37	30	79	41	57	32	60	19	60	14	38	22	61
상당히 그러하다	5	10	28	95	12	20	8	22	20	129	30	110	15	48	12	28	32	115
Kendall's τ	-0.10188	0.05077	-0.06424	-0.06389	0.21336*	0.01490	0.00979	-0.06879	0.07812									

註: *는 $H_0(\tau=0)$ 가 有意水準 5%에서 기각됨.

아울러 代金の 支給遲延問題도 解決하기 위하여서는 受給市場의 擴大를 통해 安定的인 市場確保가 可能하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또 代金支給遲延의 短期的 處方으로는 受給企業에 대한 원활한 어음의 割引을 통한 金融支援이 될 것이다.

둘째, 主去來母企業이 있을 때 代金支給遲延의 問題가 덜 發生하는 理由中的 중요한 것은 日本式的 都給組織 運營方式의 影響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母企業들은 單價引下 壓力에 順從하는 受給企業에 대하여 代金決濟에 있어서 好意的 處遇와 長期契約에 의한 계속적인 發注關係를 維持할 수 있다. 또 受給企業들이 單價引下の 壓力을 甘受하면서도 主去來母企業과 계속해서 去來를 하는 根本理由는 역시 狹小한 市場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國

〈表 23〉 受給의 形態(1次下請인가 2次以上の 下請인가)

	企業數	構成比(%)
最終完成品 製造業者로부터 受注	245	80.3
部品生産者로부터 再下請	22	7.2
양쪽으로부터 受注	38	12.5
總 計	305	100.0

際都給의 增進을 포함해서 都給市場의 擴大가 重要하며 이를 위해서는 都給에 관한 情報提供과 斡旋業務의 活性化와 같은 支援政策이 要求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3) 2次以下の 都給問題

우리나라 機械工業에서의 都給組織을 보면 대부분이 1次下請에서 끝나고 2次以下の 重層的 構造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23 참조). 그러나 專門度가 深化되고 細分될수록 都給組織은 多層的 構造를 갖게 되며 生産의 迂廻範圍가 넓어지게 된다. 또 그렇게 될수록 分業의 經濟的 利益도 그 幅이 넓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表 24〉에 볼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受給品目的 生産이 再下請에 의존할 경우에는 製品의 耐久性問題解決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素材의 質이나 價格 또는 生産技術의 未治에서 오는 耐久性問題는 再下請에 依存할 경우에는 그리 深刻하지 않은 것으로 判明되었다.

우리나라에서 2次以下の 都給이 發達되지 못한 것은 勿論 受給企業들의 專門度가 深化되지 않고 專門性的의 細分化가 이루어지지 못

〈表 24〉 受給品目的 再下請與否와의 相關關係

變 數 名	項目數 (N)	標本의 크기 (n)	Kendall's τ
品目的 技術上 問題點			
(i) 素材의 質에서 오는 耐久性	4	482	-0.1135**
(ii) 素材의 價格 때문에 發生되는 耐久性	4	477	-0.1254**
(iii) 生産技術의 미흡에 기인된 耐久性	4	460	-0.1007*
(iv) 技術人力의 不足에서 오는 精密度	4	471	-0.0338
(v) 生産設備의 미흡에서 오는 精密度	4	479	0.0026

註: 1) 受給品目中에서 再下請을 주지 않으면 ①單純下請品目으로, 再下請을 주면 ②再下請品目으로 區分하였음.

2) *와 **는 各各 有意水準 5%와 1%에서 歸無假說($H_0: \tau=0$)의 棄却을 意味함.

3) 項目의 자세한 것은 金載元, 『機械工業에 있어서 都給去來增進方案에 관한 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83. 2 參照.

한 것이 그 根本理由이겠지만 그밖에 安定的인 市場確保가 이룩되지 못한데도 理由가 있다. 즉 母企業들은 受給企業들에 대한 信賴性의 不足으로 OEM用 部品の 組立(sub-assembly)은 委託을 기피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는 安定的 市場確保가 어렵고 單價決定이나 代金決済에 있어서 母企業과 受給企業間의 協力關係 維持가 一般的으로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都給組織의 深化(2次以下の 都給組織 構築) 問題는 全般的인 都給組織 增進問題와 關聯된다고 볼 수 있다.

N. 要約 및 政策提案

1. 都給組織의 增進方案(基本原理)

都給組織이란 母企業(primary company)과 受給企業(secondary company, subcontractor) 間의 契約에 의한 生産分業體系를 의미하며 受給企業은 母企業의 注文에 따라 部品(parts) 또는 그 附屬品(components)을 生産·供給하거나 母企業에 의해서 販賣될 製品을 組立 또는 生産하게 되며 또 母企業을 위해서 原資材를 加工하는 경우도 있다. 母企業과 受給企業의 關係는 대부분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關係로 이어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母企業은 반드시 大企業이어야 한다든가 또 受給企業은 반드시 中小企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中小企業도 都給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大企業도 都給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研究에서 우리의 基本觀點은 機械工業

에서의 都給組織의 增進과 母企業과 受給企業間의 人爲적이고 非經濟的 理由에 의한 不均衡的 地位를 是正하여 跛行的 發展을 막기 위한 方案을 모색하는데 있다. 都給組織의 增進이란 많은 專門受給企業을 育成하여 生産의 分業을 量的으로 擴大하는 都給組織의 擴大와 受給企業들의 專門性을 高度化·細分化하여 分業組織이 垂直적으로 深化되는 都給組織의 深化를 모두 包含하는 것이다. 또 都給組織은 巨大한 資本動員을 필요로 하는 組立企業(母企業)과 비교적 單純勞動集約的인 生産過程을 擔當하는 受給企業 그리고 尖端의 技術을 保有하고 있는 受給企業 등 3個의 企業群으로 形成되는 것이 一般的이다.

都給去來는 母企業의 注文에 의하여 去來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受給企業들은 母企業이 미리 作成한 設計(pre-established specification)에 의하여 生産에 임하게 되고 또 獨自의 市場開拓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그 特徵이다. 그러나 都給去來도 하나의 經濟去來인 만큼 都給市場의 均衡은 母企業에 의한 需要와 受給企業에 의한 供給에 의해서 決定되게 된다. 따라서 都給去來의 增進을 支援하는 政策은 이와 같이 需要와 供給의 增加를 誘導하는 방향으로 進行되지 않으면 안된다.

都給組織이 增進되어 가는 過程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음의 두 가지 基本要件이 充足되어야 한다. 그 두 가지 基本要件이란 市場條件과 技術條件이다. 즉 都給組織의 擴大를 위하여서는 充分한 市場이 確保되어야 하고 또 都給去來가 經濟的 利益(費用節減 및 品質改善)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상당한 水準의 技術條件이 充足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위의 두 前提條件은 相

互依存的이다. 充分한 市場이 確保되면 生産에 있어서 規模의 經濟效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生産의 分業을 통해 專門化가 容易해 지게 된다. 즉 生産의 分業은 技術의 蓄積이나 開發을 容易하게 하고 따라서 技術條件의 充足을 可能하게 하는 것이다. 또 技術의 蓄積이나 開發을 통해서 技術水準의 向上이 먼저 시작되면 이는 受給企業들의 專門化를 容易하게 하고 受給企業들의 專門化가 進行되면 都給去來가 擴大되어 製品의 品質向上과 價格安定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市場確保가 容易하게 되는 것이다.

市場條件의 充足을 위하여서는 國內母企業의 成長發展과 內需市場의 擴大가 필요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國際都給을 통해 海外市場의 開拓도 도모하여야 될 것이다.

技術條件의 充足은 技術革新의 必要性을 認識하는 段階에서부터 技術의 確保 및 企業化 段階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短期間에 解決될 수 없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러나 技術革新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基本的인 要件은 近代의 經營技法을 導入하여 經營의 合理化를 기하는 것과 長期間이 所要되더라도 技術革新만이 企業의 競爭力과 利潤을 높이는 最善의 방도가 되도록 企業環境을 造成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企業環境이란 資源의 配分이 效率性에 따라 이루어지고 投機가 盛行하지 않고 인플레이에 의한 資本利益(capital gain)이 없는 安定된 經濟社會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 母企業과 受給企業 그리고 受給企業間的 協力を 돈독히 하는 것이다.

이제 以上の 두 가지 前提條件이 充足되어 나가면 專門受給企業의 育成을 통해 都給去來가 擴大되고 이는 곧 完成品의 價格安定과 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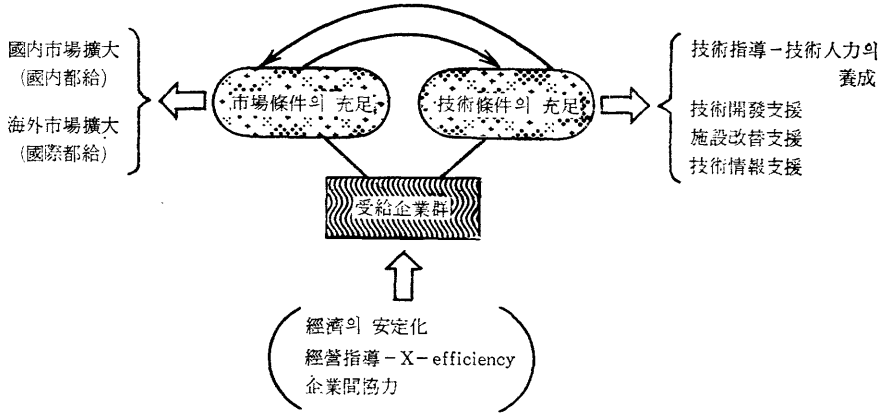
質向上을 통해 對外競爭力이 提高될 것이며, 이는 곧 輸入代替와 輸出增大의 效果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都給組織 增進의 原理를 要約하면 [圖 1]과 같다.

2. 支援政策의 基本方向

都給去來도 일종의 經濟去來이기 때문에 都給組織의 運營도 經濟原理에 立脚하지 않으면 안된다. 經濟原理에 立脚한다는 것은 都給去來가 市場機能에 맡겨져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都給組織의 增進을 支援하는 政策手段도 都給組織의 利用이 母企業과 受給企業 雙方은 물론 經濟全體로 볼 때 利潤(및 利益) 增加의 直接的인 動機가 되도록 與件을 造成하는데 限定되어야 한다. 母企業과 受給企業에 아무런 利益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데도 都給組織을 利用하도록 하는 方法의 硬直的 制度運營은 오히려 負의 效果를 招來할 可能性마저 있다. 都給去來의 增進을 위하여 支援할 수 있는 政策의 範圍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母企業으로부터의 需要增進을 위하여서는 國內 및 海外市場의 開拓이 필요하게 된다. 市場이란 消費者를 위한 最終生産品의 市場뿐만 아니라 受給企業이 生産한 部品의 市場까지를 包含한다. 따라서 海外市場의 開拓은 國際都給市場의 開拓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를 위한 支援政策은 金融, 稅制, 關稅政策 등 傳統的 經濟政策이 되겠으나 都給組織의 增進이라는 狹義의 觀點에서 볼 때 國內外 市場에 대한 正確하고 迅速한 情報의 提供이 支援政策의 焦點이 될 것이다.

다음에 受給企業들의 供給能力을 增強시키기 위하여서는

〔圖 1〕 都給組織 增進의 原理



첫째, 資金力이 貧弱한 中小受給企業들에 대하여 施設投資 및 施設改替가 가능하도록 支援하는 것이다. 특히 危險負擔이 큰 尖端技術의 開發投資를 위하여서는 政府의 支援이 絶對的으로 重要하다는 것은 先進外國의 예에서도 볼 수 있는 바다.

둘째, 受給企業間의 協力增進을 위한 政府의 支援이다. 都給組織의 利用은 生産의 分業을 통해 生産의 專門化를 기하고 規模의 經濟效果를 얻고자 하는데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規模의 非經濟가 뒤따르게 된다. 이와 같은 非經濟를 除去하고 都給去來의 利益을 한층 더 強化하기 위하여 受給企業들간에는 施設의 共同利用, 原料의 共同購入, 技術의 共同開發 등 相互協力이 필요하게 된다.

세째, 많은 中小企業群으로 構成된 都給組織은 그 構成員인 中小企業들의 生産 및 經營의 柔軟性을 利用할 수 있다는데 또 하나의 長點이 있다. 즉 消費構造의 變化, 새로운 生産技術의 開發등으로 生産組織이 變態없이 變化하여 가고 있다. 이와 같은 産業構造의 變化에 대하여는 中小企業이 大企業에 비하여 그 對應力이 強하고 敏捷하다. 따라서 中小企

業들은 끊임없이 生成·變態하여 가고 있는 것인데 이를 좀더 圓滑하고 활기있게 對處하도록 中小企業에 대한 創業과 轉業을 支援할 필요가 있게 된다.

끝으로 都給市場에서의 需要와 供給을 모두 刺戟하기 위한 政策으로는

첫째, 中小受給企業에 대한 技術水準을 提高하는 것이다. 技能 및 技術人力의 量的 擴大는 都給組織의 擴大에 基本要件이며 專門度의 高度化 및 細分化는 都給組織의 深化에 基本要件이 된다.

둘째, 母企業과 受給企業間의 不均衡의 地位의 是正을 위한 政府의 介入 또는 受給企業에 대한 政策의 保護가 要請되는 경우가 있다. 母企業과 受給企業間의 不均衡의 地位는 都給去來의 特殊性으로부터 發生하는 것이다. 즉 都給去來는 一般 經濟去來와는 달리 小數의 需要者(母企業)와 多數의 供給者(受給企業)로 構成되기 때문에 需要獨占(monopsony) 또는 需要寡占(oligopsony)의 현상을 띠게 되어 여기서 오는 弊端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不充分한 市場機能(market malfunctioning)의 校正을 위한 政府의 介入이 필요하

게 된다.

세계, 都給組織은 母企業과 受給企業間의 分業을 통해 生産하고 이와 같이 合作으로 生産된 製品을 共同으로 消費者 또는 最終使用者에게 販賣하는 것이므로 母企業과 受給企業間의 協力은 都給組織의 成功的 利用에 매우 重要的 要素이다. 따라서 都給組織이 發展되지 못한 初期段階에서는 이의 增進을 위한 政府의 支援이 要請되게 된다.

3. 政策의 改善方向과 새로운 政策提案

가. 金融制度의 改善

都給組織增進을 위한 政府의 支援政策中에서 가장 重要하고 그 效果가 分明하며 強力한 方法이 金融支援方法이다. 왜냐하면 中小企業들은 대개 資金力이 약하기 때문에 老朽施設의 改替나 새로이 確保된 最新의 生産技術을 企業化하는데 必要的 資金 등은 政策的 支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中小企業은 大企業에 비해 制度金融에 의한 惠澤을 적게 받고 있으며 또 金融의 관행이 擔保위주이어서 擔保力이 부족한 中小企業들은 金融支援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는 實情이다. 또 어렵게 얻어낸 公金融機關으로부터의 貸出資金도 그 延滯利率이 私金融市場에서의 利率보다 더 낮으면 融資金에 대한 償還을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일 것은 당연하며 이는 資金의 循環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融資金의 梗塞을 더 한층 촉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企業과 金融機關間의 資金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金融관행을 擔保위주에서 信用중심으로 轉換토록하기 위해

서는 中小企業과 地域經濟育成을 뒷받침할 수 있는 小規模 地方銀行을 自由로이 設立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設立된 地方銀行은 擔当地域內에서의 一定規模의 中小企業만을 고객의 대상으로 制限할 뿐만 아니라 그 地域에서 造成된 金融資金(預金)은 特性에 따라 設立된 特定地域의 中小企業만을 支援토록 하면 生産의 分業을 위한 都給組織도 크게 촉진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小規模 地方銀行의 長點은 信用社會의 發展에 寄與할 수 있다는 것이다. 擔保가 아닌 信用에 바탕을 둔 金融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金融機關이 고객의 信用정도 즉 企業主의 事業能力, 企業의 事業性, 企業主의 教育水準, 社會活動範圍 등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며 또 借主의 입장에서 金融機關과의 個人的 親分關係가 維持되게 되면 自身の 信用狀況이 企業經營에서 얼마나 所重한 것인가를 理解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信用社會의 育成을 위하여서는 고객과 金融機關이 個別的 親分關係를 維持할 수 있는 小規模 地方銀行의 形態가 가장 效果的일 것이다. 地方銀行의 性格이 強化되면,

첫째, 產業의 地方分散이 가능해지고

둘째, 資金의 專門化 즉 資金이 해당 地域 特殊產業에 집중토록 함으로써 地方特殊產業 育成에 寄與하게 되어 都給去來도 촉진되게 될 것이다.

나. 中小企業 金融方式의 改善

첫째, 擔保力이 부족한 中小企業에의 金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信用保證基金의 擴大가 필요한데 현재 信用保證基金法 第25條 第1項에 의하면 信用保證基金의 總保證限度는 移越利益金を 合計한 基本資産의 15배까지

擴大할 수 있으며 各金融機關은 貸出殘額의 0.3%(1980年 以前에는 0.5%)씩 出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信用保證基金의 信用保證 擴大를 위해서는 政府出捐에 의한 保證能力의 擴大가 필요하다.

둘째, 前渡金融의 強化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母企業의 財務構造가 허약하여 母企業으로부터의 受給企業에 대한 資金支援이 거의 없는 狀態이므로 回收가 確實한 生産資金에 대하여서는 支援強化가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세째, 中小企業에 대한 資金의 支援은 貸出의 形式보다는 어음割引의 方式으로 強化되어야 한다. 中小企業에 대한 金融은 資金의 신속한 流通이 더 重要하기 때문이다.

다. 都給斡旋機構의 新設

外國의 경우를 보면 專門生産技術을 가지고 있으나 市場開拓能力이 없는 中小受給企業을 위해서 都給去來를 알선하는 專門機構가 잘 發達되어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CENAST (National Centre for Subcontracting)나 日本의 全國下請企業振興協會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類似한 機構로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에 設置되어 있는 系列化促進協議會가 있으나 그 效果가 별로 크지 못한 것이 現在의 實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都給組織이 잘 整備·發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受給企業들을 위한 市場擴大를 위해서 그리고 受給企業들의 不平等去來를 미리 防止하기 위해서 이를 專門적으로 擔當할 專門機構의 設立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都給斡旋機構가 擔當하여야 할 業務分野로는,

첫째, 母企業과 受給企業間的 都給去來를 알선하여 中小企業들로 하여금 安定的 市場確保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標準都給契約書를 法律로 要式化하여 受給企業들이 不當하게 不利한 契約에 임하지 않도록 하며,

세째, 受給企業들이 스스로 地位向上에 努力할 수 있도록 組織化를 側面支援하고

네째, 販賣市場 및 生産技術에 대한 國內外 情報를 提供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機構의 設立으로 期待되는 效果는 産業의 地方分散과 生産의 分業을 촉진하며 都給去來를 擴大·發展시키는 동시에 受給企業間 競爭을 提高시키는 것 등이다.

라. 代金決濟方式의 改善

우리나라의 系列化促進法上에는 製品의 納品日로부터 60日以內에 代金決濟를 완료하고 이 期間을 넘기는 경우에는 母企業은 受給企業에 대하여 遲延利子를 支拂도록 되어 있으나 事實上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母企業과 受給企業間的 相互理解와 協助를 방해하고 相互不信을 助長하는 악습을 낳고 있다. 그러나 母企業과 受給企業間的 關係가 外部的 法令에 의해서 定立되고 去來關係가 그와 같은 外部的 法令에 의해서 規制되면 都給組織의 자발적 發展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또 인위적으로 形成된 都給組織은 그 效果面에서도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母企業과 受給企業間的 相互理解와 協助體制를 增進하기 위해서는 外部的 壓力과 物理的 制裁措處보다는 間接적이고 誘因적인 措處를 강구하는 것이 效果의 일 것이다.

이를 위한 政策手段으로서는

첫째, 母企業으로 하여금 優良中小受給企業을 指定토록 하여 優良企業으로 指定받은 受給企業에 대하여서는 母企業의 保證 아래 모든 어음을 우선적으로 100%割引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優良企業으로의 指定이 金融惠澤을 수반하게 된다면, 受給企業들은 優良企業으로 指定받기 위하여 品質改善 및 納期遵守에 努力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企業間 競争을 深化하고 母企業과 受給企業間의 協助도 增進될 것이다.

둘째, 金融機關에 대하여 對中小企業義務貸出比率를 設定할 것이 아니라 對中小企業 어음決済資金을 따로 策定, 이를 大企業(母企

業)에 供給하여 母企業으로 하여금 受給企業들에 대한 信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資金의 循環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中小企業들의 對銀行負債를 母企業이 지도록 하여 中小受給企業들의 財務構造改善을 위해 重要な 役割을 하게 될 것이다.

마. 中小企業製品의 輸出增進策 強化

中小專門受給企業 育成的 重要な 隘路要因의 하나는 市場問題인 바 이를 政策的으로 支援할 수 있는 하나의 方案은 高麗貿易 등 中小企業製品 專擔輸出機構를 強化하여 國際都給을 發展시키는 것이다.

▷ 參 考 文 獻 ◁

金廣斗, 『中小企業技術革新促進을 위한 政策研究』, 韓國開發研究院 院內討議資料, 1982. 12.
 金裁元, 『機械工業에서의 都給去來增進方案에 관한 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83. 2. (近刊)
 金裁元 外, 『유럽의 中小企業과 金融支援制度』, 韓國開發研究院, 1982. 11.
 中小企業銀行, 『中小企業實態調查報告』, 各年度.
 中小企業振興公團, 『中小企業經濟指標』, 1981.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中小企業 育成施策 問答』, 1982.
 Banerji, R., "Average Size of Plants in Manufacturing and Capital Intensit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May 1978.
 Berthomieu, C. and A. Hanaut, "Can International Subcontracting Promote Indus-

trialization?", *International Labor Review*, May-June 1980.
 Germidis, D. (ed.), "International Subcontracting," Development Centre of OECD, 1980.
 Hoselitz, "Economic Policy for Development", Penguin Book, 1971.
 ILO, "Subcontracting and Export Marketing in Korean, Japan and Hong Kong", Industrial Development and Finance Division, South Asia Projects, March 3, 1980.
 Kim, Jae Won, "CES Production Functions in Manufacturing and Problems of Industrialization in LDC's", KDI Working Paper 8106, 1981.
 OECD, "Transfer of Technology for Small Industries", Seminar held at Schloss Herstein, Austria, 5th-8th July, 1973.
 Siegel, S., "Nonparametric Statistics for Be-

- havioral Science," McGraw-Hill, 1956.
- UNIDO, "Subcontracting for Modernizing Economics", 1974.
- Watanabe, S.,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Firms in the Filipino Automobile Industry," ILO, March 1979.
- Watanabe, S., "Reflections on Current Policies for Promoting Small Enterprises and Subcontracting", *International Labor Review*, 1974.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案內

- ① 韓國「인플레이션」의 原因과 그 影響
金光錫 著 18 切判・122 面
高級洋裝・1,200 圓
- ② 穀價政策의 計劃化~次善의 糧穀政策
文八龍 著 18 切判・158 面
高級洋裝・1,800 圓
- ③ 韓國農業의 成長(1918~1971)
潘性執 著 18 切判・250 面
高級洋裝・2,000 圓
- ④ 韓國家計의 貯蓄行態
金光錫 著 18 切判・146 面
高級洋裝・3,000 圓
- ⑤ 農產物價格分析論~理論과 政策
文八龍 柳炳瑞 共著 18 切判・318 面
高級洋裝・4,000 圓
- ⑥ *TRADE AND DEVELOPMENT
IN KOREA*
洪元卓 編 18 切判・254 面
A.O. Krueger 高級洋裝・4,000 圓
- ⑦ *SOCIAL SECURITY IN KOREA*
朴宗洪 著 18 切判・198 面
高級洋裝・4,000 圓
- ⑧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L.P. Jones 著 18 切判・294 面
高級洋裝・4,000 圓
- ⑨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金光錫 共著 18 切判・336 面
L.E. Westphal 高級洋裝・4,000 圓
- ⑩ *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判・236 面
高級洋裝・4,000 圓
- ⑪ 勞動供給과 失業構造
金秀坤 著 18 切判・202 面
高級洋裝・3,000 圓
- ⑫ 韓國의 鐵鋼需要分析
宋熙季 著 18 切判・250 面
高級洋裝・3,500 圓
- ⑬ 韓國鐵鋼工業의 成長
金胤亨 著 18 切判・508 面
高級洋裝・4,000 圓
- ⑭ *PLANNING MODEL AND
MACROECONOMIC POLICY
ISSUES*
金迪教 編 18 切判・492 面
高級洋裝・4,000 圓
- ⑮ *INDUSTRIAL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
金迪教 編 18 切判・342 面
高級洋裝・4,000 圓
- ⑯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金善雄 編 18 切判・532 面
高級洋裝・4,500 圓
- ⑰ 韓國電力需要 및 價格의 分析
張榮植 著 18 切判・252 面
高級洋裝・3,500 圓
- ⑱ 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
李奎億 著 18 切判・370 面
高級洋裝・3,500 圓
- ⑲ 賃金과 勞使關係
金秀坤 著 18 切判・244 面
高級洋裝・3,500 圓
- ⑳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洪思媛 著 18 切判・214 面
高級洋裝・3,500 圓
- ㉑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判・410 面
高級洋裝・4,000 圓
- ㉒ 成長과 構造轉換
金光錫 共著 18 切判・194 面
M. Roemer 高級洋裝・3,500 圓
- ㉓ 韓國의 綜合輸送體系
林浩奎 著 18 切判・306 面
高級洋裝・5,000 圓

- 24 韓國企業의 財務行態
南相祐 著 18 切判・204 面
高級洋裝・3,500원
- 25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
金光錫 共著 18 切判・166 面
朴俊卿 高級洋裝・3,500원
- 26 **COMMUNITY DEVELOPMENT
AND HUMAN REPRODUCTIVE
BEHAVIOR**
洪思媛 著 18 切判・198 面
高級洋裝・4,000원
- 27 農業投資分析論
文八龍 共著 18 切判・250 面
林栽煥 高級洋裝・4,000원
- 28 纖維・電子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金榮奉 著 18 切判・180 面
高級洋裝・3,500원
- 29 鐵鋼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南宗鉉 著 18 切判・192 面
高級洋裝・4,000원
- 30 韓國의 所得分配의 決定要因(上)
朱鶴中 編 18 切判・470 面
高級洋裝・5,500원
- 31 韓國의 國土・都市・環境
宋丙洛 編 18 切判・410 面
高級洋裝・5,000원
- 32 韓國의 保健財政과 醫療保險
朴宗淇 著 18 切判・272 面
高級洋裝・4,500원
- 33 石油化學工業의 現況과 展望
具本英 著 18 切判・236 面
高級洋裝・4,000원
- 34 成長과 都市化問題
宋丙洛 共著 18 切判・270 面
E.S. Mills 高級洋裝・4,500원
- 35 韓國의 流通經濟構造
林浩奎 著 18 切判・306 面
高級洋裝・5,000원
- 36 韓國工業化의 原因과 그 要因
金光錫 著 18 切判・272 面
高級洋裝・4,000원
- 37 保健醫療資源과 診療生活圈
延河清 共著 18 切判・336 面
金學泳 高級洋裝・5,500원
- 38 韓國의 教育과 經濟發展
金榮奉 外 18 切判・272 面
N.F. McGinn 高級洋裝・4,500원
- 39 貿易・外援과 經濟開發
A.O. Krueger 著 18 切判・256 面
田英鶴 譯 高級洋裝・4,000원
- 40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判・414 面
高級洋裝・5,000원
- 41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判・384 面
高級洋裝・5,000원
- 42 **KOREAN REGIONAL FARM
PRODUCT AND INCOME:1910~75**
A. Keidel 著 18 切判・268 面
高級洋裝・4,500원
- 43 韓國의 農村開發
文八龍 共著 18 切判・396 面
潘性執 高級洋裝・6,000원
D.H. Perkins
- 44 需給構造의 物價政策
李煥 著 18 切判・288 面
高級洋裝・5,000원
- 45 經濟開發과 政府 및 企業家의 役割
司空壹 共著 18 切判・410 面
L.P. Jones 高級洋裝・4,500원
- 46 **PRIMARY HEALTH CARE
IN KOREA**
延河清 著 18 切判・214 面
高級洋裝・4,000원

KDI 圖書會員制案內

本研究院은 그간 本院의 刊行物を 필요로 하는 學界 및 企業界의 끊임 없는 購讀要請에 副應하고, 本研究院의 研究結果를 보다 廣範圍하게 普及함으로써 國內의 經濟動向과 政府의 經濟政策 등 필요한 學術的 情報를 讀者 여러분에게 보다 손쉽게 傳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製作實費에 의한 KDI 圖書會員制를 實施합니다. 讀者 여러분의 많은 參與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會員에 대한 特典

- ① 會員加入期間(1年) 중 本研究院이 發刊하는 一切의 刊行物を 郵送함 (但, 自體資料 및 配布制限資料는 除外).
- ② 本研究院 圖書室 所藏圖書·資料의 利用惠澤을 드립니다.

2. 會 費 : 50,000원

3. 加入期間 : 年中 언제나 接受하되 接受된 날로부터 1年間 會員으로서의 資格이 유지됨. 계속 會員資格을 유지하실 분은 有効期間 終了以前에 再登錄을 要함.

4. 加入方法

- ① 직접 本院 出版課에 拂入하거나
- ② 가까운 郵遞局에서 本院 郵便對替計座(計座番號 : 0514919)에 拂入하시되 團體의 경우는 事業者登錄番號 및 代表者名을, 個人의 경우는 住民登錄番號를 明記해야 함.

5. 其 他

- ① 刊行物 發送料는 本院이 負擔(國內發送에 限함).
- ② 受信處의 變更이 있을 때는 즉시 本院 出版課에 通知해야 함.
- ③ 加入會費 50,000원 외 다른 費用負擔은 없음.

6. 問議處

우편번호 : 131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한국개발연구원 출판과 (전화 967-3287)

④7 韓國 經濟・社會의 近代化

金滿堤 外 18 切 判・530 面
E.S. 메이슨 高級洋裝・6,500원

④8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外換政策

李天杓 著 18 切 判・228 面
高級洋裝・4,000원

④9 韓國의 所得分配의 決定要因(下)

朱鶴中 著 18 切 判・432 面
高級洋裝・7,000원

⑤0 國民經濟의 福祉年金制度

延河清 共著 18 切 判・428 面
閔載成 高級洋裝・7,000원

⑤1 技術革新의 過程의 政策

金仁秀 共著 18 切 判・402 面
李軫周 高級洋裝・7,000원